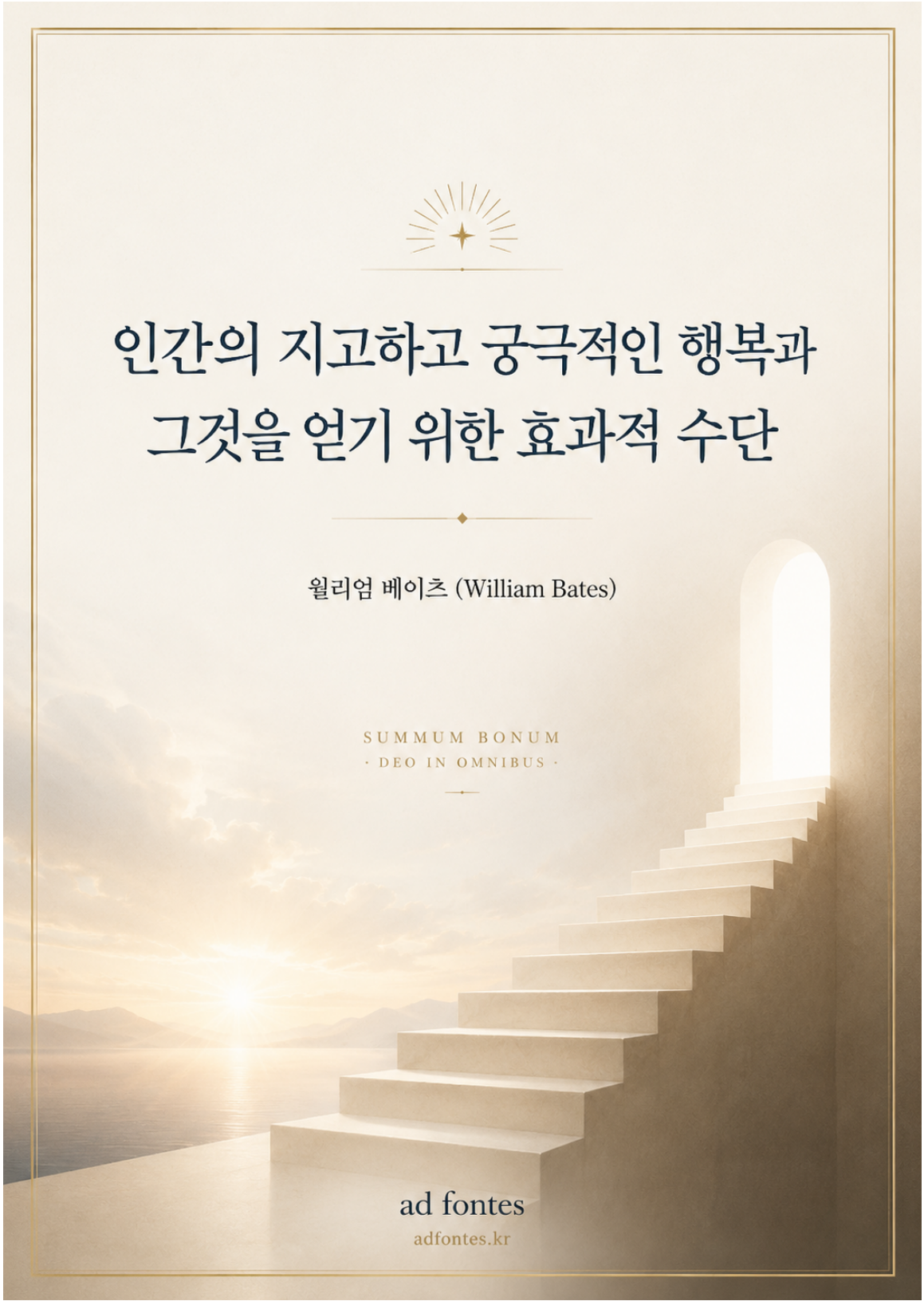
인간의 지고하고 궁극적인 행복과
그것을 얻기 위한 효과적 수단
윌리엄 베이츠 (William Bates)
SUMMUM BONUM
· DEO IN OMNIBUS ·
ad fontes
adfontes.kr

인간의 지고하고 궁극적인 행복과 그것을 얻기 위한 효과적 수단

윌리엄 베이츠(William Bates, D. D.)

런던, 1680 년. J. D. 인쇄, 브라바존 에일머 출판.

인간의 지고하고 궁극적인 행복과 그것을 얻기 위한 효과적 수단 (Ad Fontes Edition)
윌리엄 베이츠(William Bates, D. D.)
원제: THE SOVEREIGN AND FINAL HAPPINESS OF MAN With the effectual means to obtain it., William Bates, 1680
발행처: Ad Fontes (adfontes.kr)
발행일: 2026 년 6 월 3 일

저작권 및 판권 안내

본 도서는 저작권이 만료된 원전을 바탕으로 Ad Fontes 가 현대적 AI 기술과 전문 신학자의 감수를 결합하여 새롭게 편집·번역한 독자적인 판본입니다.

본 판본의 번역 및 편집 저작권은 Ad Fontes 에 있으며,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제, 공유 및 상업적 이용을 엄격히 금합니다.

번역 및 편집: Ad Fontes 편집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 1 문의 가장 장엄하고 실천적인 해설"

이 책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개혁주의 신앙의 위대한 고백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작품이다. 윌리엄 베이츠는 타락한 인간이 헛된 세상의 것들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는 비참한 현실을 지적하며, 오직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지고하고 궁극적인 행복(Supreme and Final Happiness)'을 누릴 수 있음을 논증한다. 본서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주제를 다룬다.

첫째, 지고하고 궁극적인 행복의 본질: 영혼의 참된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가? 베이츠는 천상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지복직관(Beatific Vision)의 영광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신자가 이 땅에서부터 그 영광을 어떻게 미리 맛볼 수 있는지 안내한다.

둘째, 행복을 얻기 위한 효과적 수단: 이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방도(수단)들을 다룬다. 말씀 묵상, 열렬한 기도, 성례, 그리고 거룩한 삶의 실천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다듬어 영원한 영광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는지를 세밀하게 가르쳐 준다.

저자: 윌리엄 베이츠 (William Bates, 1625–1699)

"청교도들 가운데 가장 유려하고 아름다운 설교자 (The Silver-Tongued Puritan)"

17 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신학자이자 비국교도 목회자인 윌리엄 베이츠(1625–1699)는 탁월한 수사학과 유려한 문장력으로 인해 당대 사람들에게 '은빛 혀를 가진 청교도'라 불린 인물이다. 1662 년 통일령 반포 당시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자 영국 국교회를 떠난 그는, 깊은 신학적 통찰과 세련된 설교를 바탕으로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속성을 아름답게 묘사하며 독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강렬하게 이끄는 탁월한 메시지를 남겼다.

목차

서문

제 1 장. 대다수 인간이 거짓 행복을 추구하다

제 2 장. 복음이 명확히 계시하는 인간의 최종 행복

제 3 장.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천국을 계획하고 예비하신 근원적 원인, 곧 하나님의 자비

제 4 장.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이에게 요구되는 구속주에 대한 믿음

제 5 장. 천국은 일찍 선택해야 한다

제 6 장. 우리의 선택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상급을 얻기 위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거룩한 생명에서의 견인

제 7 장. 인간이 어떻게 거짓 행복을 선택하고 참된 행복을 거부하도록 유인되는가

제 8 장. 우리의 선택을 인도하는 데 필수적인 영원한 것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

제 9 장. 지혜로운 선택을 위해 요구되는 숙고

제 10 장. 숙고의 대상들

제 11 장. 제시된 다른 동기들: 하나님은 인간의 영원한 행복을 원하신다

제 12 장. 복음은 천국보다 죄의 쾌락을 선호하는 모든 이에게 지옥을 경고한다

제 13 장. 마지막 지침: 영원한 세계를 믿도록 우리의 지성을 밝히시고, 장차 올 복을 갈망하고 추구하도록 우리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돌이키시기를 구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서문

우리가 다루려는 이 주제는 그 자체의 본성과 탁월함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자명합니다. 참된 행복은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 가운데 처음과 마지막을 차지합니다. 그 매력적인 탁월함으로 인해 가장 먼저 추구하는 대상이 되며, 그 완전한 누림으로 인해 최종적인 귀결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가장 귀한 가치를 지닌 행복이라는 주제는 모든 사람과 깊이 관련됩니다. 행복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며, 그것을 얻고자 진실로 힘쓰는 모든 이가 동등하게, 그리고 영원히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땅의 다양한 삶의 조건 속에서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거나 그들의 궁극적 목적이 다른 데 있다면, 그들이 천상의 지복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나 영혼의 이끌림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관심사가 현세적인 것들에 국한되어 있다면, 그들이 오직 현세의 것들만 추구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조건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품습니다.

이 땅에서 부와 지위, 혹은 그 밖의 일시적인 우연성이 사람들 사이에 만들어 내는 가장 뚜렷한 불평등조차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실로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 영광을 얻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차별도 낳지 못합니다. 나아가 영원한 구원의 교리는 모든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처한 다양한 현세적·영적 상황에도 놀랍도록 유익합니다.

세상에서 형통한 자나 고난받는 자, 경건한 신앙이 낯선 자나 영혼의 문제에 노련한 자, 은혜의 상태에 갓 들어선 자나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자 모두 이 교리를 숙고함으로써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늘의 생명력이 열매의 다양한 속성에 맞추어 지혜롭게 작용하여, 단단한 것을 부드럽게 하고 작은 것을 자라게 하며 푸른 것에 색과 아름다움을 입히고 거친 맛을 달콤하게 하여 향기롭고 온전하게 익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천상의 상이 지닌 능력은 악에 완고한 자를 변화시키고 선을 행하기 주저하는 자를 격려하며, 거룩한 생명이 처음 싹트게 하여 그것이 온전해질 때까지 돌보고 강하게 합니다. 행복은 우리 순종의 샘이자 면류관입니다.

덧붙이자면, 인간의 궁극 목적과 최고선만큼 지혜롭고 선한 이들의 마음을 오랫동안 사로잡았던 주제는 없습니다. 이 지극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면서, 저는 제 저술 의도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그들의 저작에서 일부 가려 뽑았음을 밝힙니다. 비록 저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지는 않았으나, 그들에게 진 빚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바입니다.

1 장. 대다수 인간이 거짓 행복을 추구하다

그들이 오류에 빠지는 원인들. 인간의 복된 최종 목적을 찾는 데 지침이 될 규칙들. 창조주의 지혜와 선하심, 인간 본성의 구조,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드러냅니다. 세상의 것들은 인간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본질적 조건에서 결함이 있습니다. 영적이고 무한하며 영원한 선이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온전히 복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을 향한 성향이 인간 본성만큼이나 보편적이라는 점은 모든 인간의 체험이 가장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이 성향은 결코 미온적이거나 메마른 것이 아니어서, 악으로 인식되는 것을 피하고 혐오하며, 선의 모습을 띤 것을 추구하는 움직임 속에서 힘차게 드러납니다. 바로 여기서, 그 공통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끊임없이 수단을 동원하는 인간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이 비롯됩니다.

어떤 이들은 감각적 쾌락과 부와 명예를 열렬히 추구하는 데 시간과 힘을 낭비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더 가치 있는 보물인 지식을 얻거나 명예로운 평판을 사는 데 힘쓰며, 마치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이 자기들의 병든 갈망을 치유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자연의 영역 안에서 영혼을 풍요롭게 하거나 육신을 보전하고 즐겁게 하는 모든 개별적인 선이 합쳐진다 해도, 참된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공허한 채 만족을 갈망하며 쇠약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성을 지닌 피조물이, 자신의 모든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깨닫고서도 행복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헛되이 행복을 구하다가, 수없는 실망 끝에 결국 불가능성에 매달리는 모습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 탐구에서 길을 잘못 드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낙원의 열매인 줄 알았던 그림 속 포도에 수없이 속고서도, 여전히 영혼을 채울 실질적인 복을 헛된 형상에서 찾는 행태는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광기입니다. 어떤 강력한 마력이 이들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는 것입니까? 어떤 오류의 영이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본래 상태의 거룩함과 완전함에서 타락하여 감정(affections)이 감각적인 것들로 사악하게 기울었고, 육욕에서 피어오르는 안개가 정신을 흐리고 가려서 참된 행복이 성취되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선을 명확히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당장의 쾌락과 그것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유혹되어 저급한 기능들을 만족시키는 데에만 몰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회복될 유일한 길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에서 무지와 어리석음을 걷어내어, 이성적 욕구에 합당한 유일한 대상을 그 참된 아름다움과 선함 그대로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분별의 빛을 통해 의지는 그 황홀한 힘을 느끼고 자유롭고 확고하게 그 대상을 선택하도록 이끌릴 것입니다. 또한 영혼이 행복을 얻는 길에 놓인 극복 불가능한 난관을 보고 낙심하여 손쉬운 허영에 안주하지 않도록, 진실하게 사용하면 효과를 발휘할 수단을 제시하고 모든 반대를 이겨내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할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지성과 의지라는 두 주도 기능이 피조물에게서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 아래 기능들도 그 움직임을 따를 것이며, 삶의 방식은 온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다음의 논의들은 바로 이 행복한 과업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 영혼의 존엄성, 능력, 불멸성, 그리고 행복의 본질적 조건들에서 도출한 논거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천국보다 땅을 우선시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 논거들을 편견 없이 고찰한다면, 자신들의 계획이 얼마나 허망한지 깨닫고 그 맹렬한 질주를 제어하며, 그들의 목표와 노력을 무한히 더 가치 있는 대상으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실제로 이루시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 천국을 사신 분의 신적인 능력에만 달려 있습니다. 오, 영혼의 태양이시요 생명이신 주여! 당신의 빛과 생명의 열기를, 곧 보이지 않는 것들의 진리에 대한 믿음과 그 지극한 선함에 대한 사랑을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에 넓게 비추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이 썩어 없어질 삶의 향락 속에서 스스로 상상의 행복을 꾸며내지 않고, 다가올 생명의 참된 복을 그 영광스럽고 영원한 가치에 걸맞은 열정과 활력으로, 감정(affections)과 행동 속에서 추구하게 하소서.

이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인간은 어떤 복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세 가지를 고찰함으로써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창조 세계를 고찰함으로써, 만물의 보존과 인간의 위로가 창조주의 마음에 있었던 최종 목표였으며, 만물이 서로에게 유용한 것 또한 인간의 유익을 위함이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인간은 우주의 중심으로, 가시적 존재들의 여러 질서는 원 안에 그어진 선들처럼 그에게서 하나로 모입니다. 그런데 어찌 인간만이 그 탁월한 본성에 걸맞은 목적 없이 홀로 내버려져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창조주의 지혜에 전가하는 비열한 상상일 뿐입니다.

둘째, 인간 본성의 구조와 능력은 [1] 그가 창조된 목적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설계에 따라 만들어진 것들의 경우, 목적은 행위자의 정신 안에 먼저 존재하며 작업의 모든 부분을 지시하고 규제하는 첫째 원리가 됩니다. 배를 예로 들면, 재료, 형태, 삭구, 도구의 수와 다양성 모두가 항해라는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인간은 땅에 속한 부분과 영적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궁극적이고 행복한 목적을 올바르게 판단하려면, 몸보다 더 고귀한 활동과 더 높은 향유를 누릴 수 있는 영혼을 중심으로 그를 고찰해야 합니다. 참된 행복의 개념은 인간의 가장 주된 수용 능력인 지성, 의지, 감정(affections)의 완전과 만족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복은 가장 탁월한 대상을 향한 행위와 누림 모두를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저급한 부분을 만족시키고 단지 자연적 욕구를 채우는 감각적 대상의 추구와 향유보다 더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필연적 결론이 나옵니다.

이를 명확히 하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닌 결함과 낮은 가치를 드러내어, 그것들이 인간에게 걸맞은 행복의 본질적 조건들을 얼마나 처참하게 충족시키지 못하는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한히 지혜롭고 선하신 신적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지적이고 불멸하는 능력을 부여하신 이유가, 바로 당신의 영광을 드높이고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 피조물의 온전한 복은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본성의 고귀함과 지위의 조건으로 볼 때 세상의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합니다. 그런데 어찌 열등한 것들이 인간을 더 낫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금이 더 값싼 금속과 섞여 더 귀해질 수 있습니까? 빛이 구름이나 연기와 섞여 더 찬란해질 수 있습니까?

세상의 부수적인 선들(Bona adventitia), 즉 명예, 부, 쾌락은 인간을 진정으로 지혜롭고 거룩하게 만들 수 없으며, 인간의 올바름과 가장 빛나는 탁월함이 참으로 자리하는 지적·도덕적 선을 티끌만큼도 더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인간 본성을 더럽히고 훼손하여 그 본성 아래로 끌어내리는 저속한 욕망과 결부되기 일쑤입니다. 외적인 명예는 진정한 공로의 표지가 아니며, 절대적으로 볼 때 악덕보다 미덕에 더 기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그림에 칠하는 니스와 같아서, 그림의 구도가 좋든 나쁘든, 모습이 아름답든 추하든 색에 광택과 생기를 더해 그 아름다움이나 추함을 더 두드러지게 할 뿐입니다. 고귀한 혈통은 한 개인의 선한 자질이나 악한

자질을 더욱 두드러지게 할 뿐입니다. 높은 지위에 오른 어리석음은 낮은 처지에 있을 때보다 더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또한 명예로운 칭호는, 빛이 반사되는 곳보다 그 근원에서 더 영광스럽고 찬란하듯 미덕이 귀족 신분보다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영혼들에게는 어리석은 교만의 빌미가 되곤 합니다.

부는 종종 소유자의 습관적인 악덕과 결부되어 선한 목적과 악한 목적에 무분별하게 사용됩니다. 부를 탐욕스럽게 추구하는 행위는 영의 모든 참된 가치를 시들게 하고 영혼을 흙과 오염으로 향하게 합니다. 감각적 쾌락은 인간을 고양하기는커녕, 그 방탕한 향유를 통해 인간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시켜, 순진무구하다는 점만 빼면 모든 면에서 짐승과 다름없게 만듭니다. 요컨대, 세상이 찬탄하는 모든 것들은 너무나 가치가 미미하여, 인간이 그것을 과대평가하고 집착할 때 오히려 그를 타락시키고 예속시킬 뿐입니다.

인간의 참된 완전성은 자신의 본래적 가치를 의식하고 고귀한 정신을 통해 세속적인 것들을 경멸하는 데 있습니다. 그 완전성은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면에서도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체험한 바에 근거하여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내적 감각은 세속적인 이들의 헛된 환상과 정반대입니다. 지상의 행복을 이루는 모든 요소를 다 갖춘 사람을 가정해 보십시오. 그는 소유가 충만할수록 오히려 만족하지 못합니다. 욕망을 채워주리라 약속했던 모든 것이 갖추어졌음에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더 이상 희망의 미끼조차 남지 않을 때, 그는 그릇된 대상에 대한 실망과 이 땅에서는 결코 만족을 찾지 못하리라는 절망이라는 이중의 불행에 필연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진지하고도 열렬한 탐구 끝에 행복을 찾고자 했던 솔로몬 자신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들조차도 모두 헛되며, 의미도 실체도 없는 허울 좋은 이름에 불과하기에 영의 괴로움일 뿐이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을 가장 충만하게 소유한다 해도 진정한 만족으로 부요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결핍을 절감하게 될 뿐이니, 세상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하는 점은 명백합니다. 시간으로 측정되는 모든 것은 급류처럼 쉴 새 없이 흘러, 한 부분이 우리 눈앞에 머무는가 싶으면 다른 부분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누가 그것을 소유하면서,

행여나 그것이 손에서 빠져나가거나 폭력으로 빼앗길지 모른다는 지극히 당연한 불안감 없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비옥하고 아름다운 캄파니아 지역 주민들의 처지와 같습니다. 그들은 늘 불을 뿜거나 연기와 재를 흩뿌리는 베수비오 화산 가까이 살기에, 언제 갑작스러운 불길이 닥쳐 자신들의 궁전과 정원과 포도원을 삼켜 그 자연의 낙원을 공포의 현장, 이 땅의 지옥으로 바꾸어 버릴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행복이라 여기는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자체가 행복의 본질과 양립할 수 없으며, 그 의심의 그림자는 우리의 가장 밝은 날들마저 어둡게 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동일시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에 국한된 모든 지혜는 그것들과 함께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지어 인간을 짐승과 동일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에게 닥치는 일이 같으니, 하나가 죽듯 다른 하나도 죽습니다. 그들 모두 숨을 같이 쉬니,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각의 눈으로만 인간을 바라본다면, 그의 생명에서 불안과 근심이 뒤섞인 어리석음 외에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의 죽음에서는 무엇을 보겠습니까? 기력이 쇠하고, 생명의 원천이 무너지고, 마침내 살아 있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분명한 표지를 지닌 영혼을 생각한다면, 만물이 각자의 원리로 돌아가듯 영혼 역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영원히 머물 것이라는 동일한 이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영혼이 본성적으로 갈망하는 행복은 영혼의 영속성에 걸맞아야 합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인간은 창조주에 의해 현세의 향유보다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해집니다. 고대의 현명한 이교도들은 이 행복을 어렴풋이 엿보았고, 그들의 철학 속에는 그 흔적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계시하기 전까지, 세상은 어둠 속에 앉아 보이지 않는 미래의 지복에는 무관심한 채 죽음의 그늘 아래서 안일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최종적인 행복을 구성하는 복된 상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야 합니다.

2 장. 복음에 의한 인간 최종 행복의 명확한 계시

그 행복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감각적 표상으로 제시됩니다. 그것은 죄와 형벌의 모든 악으로부터의 면제를 포함합니다. 온전한 지복을 위해 모든 긍정적 탁월함이 함께 작용합니다. 몸은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고, 영혼은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성은 가장 탁월한 대상을 명확히 관조할 것이며, 의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불타오를 것입니다. 최고의 만족은 지식과 사랑을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옵니다. 천국의 충만한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생명과 불멸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 낸 것은 복음만이 지닌 특별한 영예입니다. 물론 이 사실이 창조주를 그분의 가시적 작품을 통해서만 보았던 이들에게 완전히 감추어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더 온전히 드러났고, 복음을 통해서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 본질이 계시되었으니, 이는 복되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통 안에서 누리는 순수하고 거룩한 행복입니다. 그 행복의 주체는 온전한 인간이므로, 이 목적을 위해 몸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 불멸의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 장소는 가장 높은 천국, 곧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위엄의 보좌와 사랑의 왕국으로 지으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영광스럽게 나타내시며 그 사랑하는 자들과 교통하십니다.

그 행복의 원인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인간의 본성을 입으신 성자의 공로 있는 순종입니다. 그것을 얻는 수단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그분의 가장 보배로운 피로 사신 유업을 상속받게 하는, 살아 있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이 초자연적 행복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확증하시기 위해 친히 완전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일어나 불멸의 관을 쓰시고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천국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으로부터 그의 지체들에게로 영광이 흘러내릴 것입니다.

성경은 이 초자연적인 복됨을 우리가 더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감각적인 표상들로 묘사합니다. 영혼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상상력의 지배력이 워낙 커서, 우리는 물질세계에서 가져온 비유와 형상을 통해서만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행복은 그 상태의 기쁨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잔치와 왕국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모든 저속한 오해를 막기

위해, 성경은 성도들의 몸이 영적인 몸이 되어 굶주림이나 목마름을 겪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욕구의 만족에서 오는 어떠한 안식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고귀한 감각인 시각과 청각의 대상들이 주는 즐거움은 이성과 결합되어 있고 짐승에게는 없는 것이기에, 그 영광스러운 상태를 우리 지성이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는 데 더 자주 사용됩니다. 그리하여 복된 이들은 때로 머리에 관을 쓰고 보좌에 앉은 모습으로, 때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든 모습으로, 또 때로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구주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이 복됨의 실체는 그러한 희미한 은유들을 무한히 초월합니다. 천국은 지상의 것들에 비유될 때 오히려 그 가치가 축소됩니다. 시간이 다할 때까지 교회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받는 영예를 누린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 안에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요일 3:2).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위대한 왕자의 혼인 잔치가 평생 외딴 시골 마을에 살며 나라의 화려한 장식 한번 보지 못하고 포도주 한 모금 맛보지 못한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듯, 우리 사유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를 아득히 넘어섭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오직 우리 지성의 빈곤함에 기대어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만으로도 이 세상의 온갖 쓴맛을 달게 하고 모든 단맛을 무미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인간의 완전한 복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온전히 누려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정결한 무리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 이 땅에서는 간절히 소망하지만,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를 온전히 누립니다. 죄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형벌적 결과도 모두 완전히 제거됩니다. 현세의 삶은 불치병과 같아서, 때로는 그 고통이 너무도 극심하여 죽음을 치료제로 갈망하고 은혜로 받아들일 정도입니다. 성도들에게 소생시키는 강장제가 있다 해도 그들의 기쁨은 슬픔과 뒤섞여 있으며, 심지어 슬픔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회개의 눈물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달콤한 위안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 있는 돌들은 깎이고 상처를 입으며 고난을 통해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하게 다듬어집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 때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부재가 정확한 설계에 따라 미리 다듬어져 성전에서는 견고하게 결합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돌들은 다른 곳에서 다듬어졌고 성전에서는 그저 제자리에 놓이는 일만 남았으며, 그렇게 놓인 후에는 신성하고 불가침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여러 혹독한 고난으로 성도들을 준비시키신 후, 슬픔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영원한 건물에 그들을 두십니다. 저 높은 곳의 셀 수 없는 무리 가운데 우는 눈이 있는가요? 한숨짓는 가슴이 있는가요? 불평하는 혀가 있는가요? 슬픔의 기색이라도 있는가요? 천국의 상태는 '생명'이라 불리니, 오직 그것만이 그 이름에 합당합니다. 그곳에는 육체의 연약함도, 가난도, 치욕도, 친구의 배신도, 원수의 박해도 없습니다. 다시는 죽음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이 없으리니,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모든 면에서 완전합니다. 순전한 기쁨은 천국의 특권이요, 섞이지 않는 슬픔은 지옥의 형벌입니다.

복된 상태에 이르려면 모든 적극적인 탁월함이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온전한 인간의 관점에서 고찰되어야 합니다. 모든 은혜는 영의 계획과 결단으로 설계되지만 육체의 사역을 통해 수행되며, 몸을 통해 가시적인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회개의 슬픔 속에서는 몸이 눈물을 흘리고, 금식할 때는 식욕이 억제되며, 감사할 때는 혀가 터져 나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을 드립니다. 감각적 쾌락과 고통에 대한 모든 승리는 영혼이 몸과 결합하여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데 몸은 망각 속에 사라지도록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한쪽은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고 다른 쪽은 흙먼지 속에 남겨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무덤에 이르기까지 몸과 영혼은 같은 경주를 달렸으니, 같은 상을 누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몸이 순종과 고난에서 영혼의 동반자였듯, 저세상에서는 복된 누림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위대한 심판관께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순결의 관이나 순교의 종려나무 가지를 수여하실 때, 몸과 영혼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참된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에 대한 보증을 얻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활동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드실 것입니다. 그들의 몸 안에서는 쇠하지 않는 영광이

실체로서 빛날 것이니, 이는 이 세상의 사라질 교만과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며, 빛의 반사에 따라 비둘기 깃털에 그려지는 거짓 색채와 같아서 새가 자세를 바꾸거나 빛이 사라지면 이내 사라져 버리는 허상과는 다릅니다. 실로 모든 아름다움과 완전함의 자리이신 그리스도의 인성에 부합하게 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치(conformity)는 그분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능성이 역사하실 때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을 불변의 영광스러운 상태로 일으키시는 것은, 태초에 모태에서 몸을 지으셨던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쉬운 일입니다. 이는 태양이 광산에서 가장 귀하고 영속적인 금속인 금과 은을 만들 때나, 들판에서 미천하고 수명이 짧은 꽃 한 송이를 피워낼 때나 똑같이 힘들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II. 영혼은 그 모든 기능에서 완전함과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지금은 그 대상들이 가려져 있어 발견할 수 없으며, 우리 정신의 연약함은 그 눈부신 광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할 것입니다. 빛으로 충만한 그 상태에서 대상들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것은, 벽의 틈새로 스며드는 한 줄기 빛과 온전히 빛나는 태양의 광채를 비교하는 것 이상으로 이 땅의 가장 분명한 계시를 능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은 그 대상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지식의 수준에 따라 교회의 여러 시대를 인생의 여러 나이에 비유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신체 기관은 수분이 과도하거나 크기가 작아 정신의 활발한 활동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성의 편린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는 앞으로 나타날 일의 예고일 뿐 많은 부분이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체 기관이 올바른 균형과 기질을 갖추게 되면, 영혼은 자신의 힘과 활력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그때에는 초자연적 질서에 속한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경륜과 우리를 복된 상태로 인도하시는 길과 같은 숭고한 대상들은 지성에 더없는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에 관한 모든 비밀이 열릴 것입니다. 경건의 위대한 신비, 곧 영원하신 성자의 성육신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정의와 자비의 조화가 그때에는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지금은 자비나 정의의 놀라운 결과들을 통해서만 보일

뿐이며, 그중에는 심히 두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륜의 이유는 우리가 찾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는 이 헤아릴 수 없는 섭리에도 적용됩니다. 깊으면서도 맑은 지혜의 모든 원천이 그때에는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일시적인 것들을 영원한 지복을 위해 배치하시는 섭리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교한 자수의 거친 면과 매듭만을 보는 듯하지만, 그때는 작품 전체가 펼쳐져 고운 색채와 균형 잡힌 형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라는 난해한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같이 온전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복의 시작과 완성은 바로 이 지식에 있습니다. 신성은 영적이어서 몸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며, 무한하여 영혼으로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지극히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앎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지식은, 거울로 희미한 형상을 보는 것과 본래의 아름다운 얼굴을 직접 마주하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가장 영광스럽게 현존하십니다. 작품의 탁월함이 그 원인의 미덕을 드러내고 인상 짓는 법입니다. 자연의 낮은 질서에 속한 모든 감각적 사물은, 신적인 세계에 나타나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결과들에 비하면 그분의 완전함에서 비롯된 미약한 파생물에 불과합니다. 천국의 영광, 그리고 그곳의 주민인 천사들과 성도들의 영광은 하나님의 위엄과 선하심과 능력을 분명히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방식으로 영화롭게 되신 중보자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중보자는 "성부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히 1:3)이라 일컬어집니다. 이는 단지 본성의 통일성으로 말미암은 동등한 완전성 때문만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중보자의 위격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온전히 계시되시므로, 우리가 그분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변함없는 완전하심을 직접 보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3)라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 본성과 연합하여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시고 자신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차지하셨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비천한 상태에 계실 때에도 지혜, 선하심, 거룩함, 능력과 같은 신적 미덕들은 그분의 위격과 삶, 계시와 기적 속에서 매우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유일하고 완전한 지복인 성부를 뵙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답하셨습니다. 하물며 그분이 승리하여 높임 받으셨을 때, 이 미덕들이 얼마나 더 찬란하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분께서 이 땅에서 하신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 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요 17:24). 이는 헤아릴 수 없는 지복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천국의 모든 피조된 영광을 비교할 수 없이 초월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든, 우리의 머리 되신 분으로 생각하든, 이 지복은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그분은 종의 형상으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죄인들의 온갖 모욕과 잔인함을 겪으셨고, 그 공로 있는 고난의 보상과 승리의 전리품으로,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바로 그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모든 지체가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요일 3:2). 모든 지복과 영광이 이 약속 안에 담겨 있습니다.

빛나던 모세의 얼굴을 보는 것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 빛은 모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반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빛이시므로, 그분의 완전하심을 뵙는 것은 제한된 주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을 빚어낼 것입니다. 구주께서 거룩한 산 위에서 변형되셨을 때, 잠시 나타났다 사라진 한 줄기 영광의 빛을 보고도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세상과 자신을 잊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친히 변화되어 그분의 승리하신 위엄을 뵙게 될 때, 그 광경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천국에서, 우리는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무한히 행복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인간을 위해 그토록 큰 영광을 지으시고, 그

영광을 위해 인간을 지으셨는지를 말입니다. 또한 인간이 반역죄로 낙원에서 정당하게 쫓겨나 영원한 죽음의 선고 아래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를 다시 은총으로 회복시키시고 상실했던 것보다 더 나은 지위를 주셨는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 위의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무한한 빚을 졌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천사들의 영적 지성에만 보이던 위엄과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는 사람을 위해 사람이 되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구속이 되시며, 그 복된 생명에 대해 죽었던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컨대, 그때 하나님은 유한한 피조물이 사랑 자체이신 분에게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실 것이며, 우리 또한 영화롭게 된 모든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지식을 향한 고귀한 정념에 사로잡힌 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식에 비하면 다른 모든 저급한 쾌락을 얼마나 멸시합니까! 그들은 어찌 그리 자신을 잊고 몸을 돌보지 않으며, 인간의 가장 높은 부분이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정신 속으로 몰입합니까? 본성적으로 감정(affections)에 직접적인 매력을 주지 않는 사물이라도, 그것을 파악하는 것만으로 지성에는 즐거움이 됩니다. 오랜 어둠 끝에 나타난 빛이, 다른 가시적인 아름다움을 동반하지 않아도 눈을 상쾌하게 하듯, 이전에 알지 못했던 진리를 명확히 발견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추상적일지라도 지적 능력에 기쁨을 줍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이들은 수학적 증명이 주는 쾌락에 기이할 정도로 황홀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것은 그 내용의 중요성이 아니라 증명의 명확성, 곧 증거였습니다. 숫자와 도형에 관한 사변보다 더 건조하고 무미건조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솔론은 임종이 가까웠을 때, 문병 온 친구들이 철학의 한 주제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지혜의 소리는 막 그를 덮치려던 죽음의 잠에서 그를 깨웠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친구들이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네들이 토론하는 것을 이해하고 나서 죽고 싶어서라네.” 지식에 대한 그의 즐거움이 이토록 컸기에, 약간의 앎만으로도 임종의 고통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이러한 지적 쾌락을 감소시키는 많은 불완전함이 있으며, 이는 천국에서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식의 습득은 종종 건강의 희생을 대가로 합니다. 자연적인 신체 활동에

필요한 생명의 기운이 격렬한 사유로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이 얼마나 자주 병약한 모습을 보입니까? 부싯돌이 자신을 소모하지 않고는 불꽃을 낼 수 없듯이, 지식 역시 우리의 미약한 감각 기능을 쇠하게 하는 연구를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지식은 진리의 샘에서 저절로 흘러나와, 더 이상 수고와 고통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회로를 통해 배우고 사물을 비교하며 분별하지만, 우리의 무지는 점진적으로 더해지는 빛으로 서서히 걷힐 뿐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보편적 지식이 한순간에 주입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도 우리가 얻는 지식은 얼마나 미미한가요? 모든 질문은 가장 민첩하고 탐구심이 강한 정신이라도 헤어나올 수 없는 미로와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럴듯한 오류가 우리의 이해력을 현혹하는지요? 우리는 기만하는 안경을 쓰고 거짓된 빛으로 사물을 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지식은 확실하고 완전할 것입니다.

천상의 낙원에는 금지된 나무도, 무질서한 감정(affections)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정신에는 여전히 공허와 고뇌가 남을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에 불충분한 것들에 대한 지식은 아무리 포괄적이라도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모든 탁월함 가운데 계신 하나님, 곧 최고의 대상이자 목적이며 영혼의 유일한 지복이신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안에서 인격적으로 빛나는 그분의 영광을 보는 첫 순간, 우리의 극심한 갈증은 어찌 그리 해소되고 우리는 기쁨과 경이로 충만해지겠습니까? 이는 단지 관념 속에서만 부유하게 만드는 보물에 대한 막연한 생각과 다릅니다. 그 거룩한 광경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실질적인 분깃을 허락합니다. 천사들은 그분 얼굴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매료되어 한순간도 그 시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영화롭게 된 영혼들 사이에는 감미로운 기쁨이 오갑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소중한 이름으로 자기 백성이 된 그들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베푸신 자신의 선하심을 기뻐하시고, 그들 안에서 빛나는 당신의 탁월하심의 반영에 매료되십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는 거룩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들의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이를 온전히 누림으로써 그들이 발견하는 안식은 얼마나 복된지요! 그들의 모든 갈망은 그분의 품 안에서 고요히 사그라듭니다. 그 뒤를 잇는 기쁨의 환희는 어떠한가요? 무한한 선이신 분에게 온전히

사랑받고, 또한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보다 더 충만한 행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저급한 정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고 수준의 완전함 속에서 귀하고 바람직한 모든 것을 품고 계시며, 모두가 서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보편적 선하심의 영향을 받습니다.

천국에서는 형이 동생에게 베푸시는 아버지의 너그러움을 불평할 이유도, 동생이 장자권을 얻으려고 형을 몰아낼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모두 주권적 영광으로 높여지며, 각자는 마치 오직 자기만의 행복인 것처럼 그분을 온전히 누립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만큼 나눌 수 없는 선이시며, 자신을 아무리 아낌없이 나누어 주셔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구속의 대가와 상급을 비교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성도에게 보편적 유익이지만, 각 신자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적용될 때는 마치 구주께서 모든 고통과 수난 속에서 오직 그 한 사람만을 눈과 마음에 두신 것처럼 역사합니다. 그분의 모든 기도와 눈물과 피가 오직 그 한 사람을 위해서만 성부께 바쳐진 것과 같습니다. 사도는 이 보편적 측면을 놀라운 말로 선언합니다. "자기 성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성자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이로 인해 각 신자가 누릴 고유한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와 존엄, 그리고 그 무한한 사랑을 심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성자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는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며 그 고난의 목적이자 보상인 것처럼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다른 모든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라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칭호로 묘사합니다. 그가 다른 제자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분노를 사지 않고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 최후의 만찬에서 모두에게 표현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즉 "성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라는 말씀을 생각하면, 그들 각자가 그리스도께 특별히 사랑받는다고 믿는 것이 당연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요한처럼) 주님의 품에 기대지는 않았을지라도, 모두 그분의 마음에 품어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천국에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보편적 보화이자 각자의 고유한 분깃이시니, 소유한다고 독점되지도 누린다고 소진되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본질로 온 세상과 그 모든 부분을 동등하게 채우시며, 자신의 섭리로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를 동등하게 돌보십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는 자신의 사랑의 풍성함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어, 각 사람이 (감히 표현하자면) 독생자의 외아들이요 그 성자의 모든 공로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상속자라 할지라도 더는 바랄 것이 없게 하십니다. 모든 성도는 불타는 신부처럼 사랑의 환희에 차 외칠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오히려 영화롭게 된 성도의 수가 많다는 사실은 그들의 기쁨을 감소시키기는커녕 형언할 수 없이 증대시킵니다. 셀 수 없는 천사의 무리와 장자들의 총회인 교회는, 하나님을 누리는 행복 다음으로 천국의 중요한 부분을 이룹니다. 거짓 없고 뜨거운 감정(affections)이 그 순결한 공동체를 하나로 묶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랑은 혈연관계나 사회적 신분, 혹은 어떤 사람을 우리의 선택과 우정을 받을 만하게 만드는 가시적인 탁월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사랑의 이유가 훨씬 더 위대하고 그 정도 또한 비교할 수 없이 더 뜨겁습니다. 모든 육적인 관계와 세속적인 고려는 그 초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사라집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사도는 다른 세계로 옮겨졌고, 지상에서 그분과 교제했던 현세적 특권에 대한 미련 없이 하늘의 왕으로서 그분과 교통했습니다. 영적 관계는 그 어떤 견고한 혈연의 유대보다 더 가깝고 영원합니다. 성도들은 모두 같은 하늘의 성부께, 그리고 그 행복한 형제단의 머리이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랑의 주된 동기는 한 인격 안에 내재한 탁월함입니다. 지혜, 거룩함, 선함, 신실함은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하여, 혈연적 가까움이나 육적인 고려보다 더 고상한 감정(affections)을, 더 친밀한 영혼의 연합을 낳습니다. 미덕은 비록 주름지고 볼품없는 노인에게서 나타나더라도 사랑스럽지만, 악덕은 아름다운 젊은이에게서 나타나더라도 혐오스럽습니다.

이 땅에서 지식을 얻는 일은 종종 건강을 대가로 치릅니다. 자연적인 신체 활동에 필수적인 생명의 정수는 격렬한 사유로 소진됩니다. 학식 있는 이들이 얼마나 자주 병약한가요? 부싯돌이

자신을 소모하지 않고는 불꽃을 낼 수 없듯이, 지식은 우리의 연약한 감각 능력을 갈아먹는 연구를 통해 얻어집니다.

육체의 눈보다 더 밝은 눈, 감각되는 빛보다 더 순수한 빛, 육신의 아름다움보다 더 신성한 아름다움, 관능적 사랑보다 더 고귀한 사랑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즐거움이 '탁월한 자들'에게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 영적 사랑에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복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기도, 곧 "성부여, 성부께서 내 안에, 내가 성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기도가 성취될 때 비로소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본성과 의지 안에서 절대적으로 하나이시기에 불변의 행복을 누리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이루는 깨뜨릴 수 없는 연합은, 바로 이 거룩한 위격들 사이의 본질적 일체성에서 나오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그곳에는 이 땅의 바벨에서처럼 마음과 혀가 갈라지는 일이 없습니다. 대신 가장 완전하고 감미로운 화합, 곧 기질과 성향의 영원한 일치가 존재합니다. 사랑은 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정서적으로 동화시키므로, 시기 어린 비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각 성도의 영광은 모두의 기쁨으로 귀결됩니다. 모든 사람은 전체의 행복에 동참하여 그 행복을 더 크게 만듭니다.

성도 모두가 그 안에서 불타는 저 천상의 불은 영혼들을 녹여 온전한 하나로 섞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만족과 내밀한 기쁨을 통해 모두의 지복은 마치 각 개인의 고유한 것이 되니, 이는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또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자리 잡은 것과 같습니다. 지상의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 교회 신자들의 사랑의 띠가 너무나 굳건하여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다"고 한다면,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저 위의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의 연합은 얼마나 더 친밀하고 나뉠 수 없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총애하는 헤파이스티온과 함께 당시 그의 포로였던 다리우스의 어머니가 머무는 천막으로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녀는 더 위엄 있어 보이는 헤파이스티온을 알렉산더로 착각하여 그에게 절했습니다. 실수를 깨닫고 겸손히 용서를 구하자, 관대한 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실수한 것이 아니오. 이 사람 또한 알렉산더이니 말이오." 그들의 감정(affections)이 어찌나 깊었던지, 둘 중 누구를 보아도 다른 한 사람을 함께 본

셈이었습니다. 작은 이가 큰 이 안으로 올랐으나, 큰 이가 작은 이 안에서 격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복된 이들의 거룩한 사랑을 보여주는 모사(模寫)이지만, 숯으로 별을 그리는 것과 하늘에서 빛나는 별 자체를 보는 것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인 곳에 모든 것이 즐거움입니다. 오, 그들은 서로의 행복을 얼마나 누리고 환호하는지 모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온유함으로 서로를 어떻게 끌어안는지 모릅니다! 그들 사이에 오가는 사랑의 표현은 어떠한지요! 아, 그 황홀한 대화와 감미로운 교통이여! 천국에서 그들이 함께 있음은 말 없는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와 대화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탁월한 담론으로 서로를 즐겁게 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솟아나는 내적 기쁨을 억누르지 못해 성도들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천국의 복된 이들 또한 틀림없이 넘치는 감정(affections)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것입니다. 은혜의 생명이 시험 속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보존되고 이어졌는지 그 놀라운 경륜을, 소망의 시절에 끊임없이 이어지던 자비를,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성취된 누림의 때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만물의 가장 낮은 계층이 될 수도 있었던 자신들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누릴 수 있는 이성적 존재로 지으신 창조의 선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을 긍휼로 돌보신 섭리에 감사합니다. 특히 그들을 존귀의 그릇으로 택하신 주권적이고 단독자적인 자비에, 죄의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속박에서 건져내신 능력의 은혜에, 오직 한 분이신 성자의 죽음으로 모든 죄책에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자신과 함께 영화롭게 하신 지극히 값없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들은 이 즐거운 일에 결코 지치지 않으며, 영원한 그분의 자비를 끊임없이 찬송합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기질을 갖추었을 때를 보면, 천국에서 그들이 연합하여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뜨거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황홀경 속에서 온 세상에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칠지로다.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는 자연이 자신을 넘어서고, 죽은 것들이 생기를 얻고, 무감각한 것들이 기쁨으로 움직이고, 소리 없는 것들이 찬양을 터뜨려 하나님의 승리를 장식하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이들은 그 거룩한 교통 가운데 사랑과 찬미의 대상을 얼마나 생동감 있고 활기차게 경축하겠습니까!

보좌 주위의 스랍들은 서로 화답하며 그분의 영원한 순결과 능력, 그리고 선하심의 영광을 찬양하는 열정과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오, 이 연합된 찬양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여! 모든 영혼이 조화를 이루어 천국의 충만한 음악에 자기 몫을 더할 때의 그 기쁨이여! 만일 우리가 저 하늘의 하늘에 울려 퍼지는 노래의 메아리라도, 영들의 왕을 장엄하게 예배하며 드리는 저 위 성도들의 승리의 찬미 소리 남은 것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그들과 함께하고픈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불타오르겠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혹 그들이 오만한 죄로 평화를 잃었더라도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애썼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잠시 영적 위로를 거두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분의 주권적인 기쁨에 순종하며 그분을 소생시키는 임재를 기다리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재판을 위해 잠시 보류하셨던 것을 보통 이자를 더하여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위의 성도들은 그분 얼굴의 생명의 광채와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영원히 빛나며, 그분의 빛나는 미소를 항상 누립니다.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영광이 천국과 그곳의 모든 복된 거주자를 비춥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관상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대상이 아무리 비할 데 없이 영광스러워도 일시적이거나, 눈이 약해 언뜻 볼 수밖에 없다면, 기쁨의 정점은 영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은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볼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활력으로 준비되며, 가장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그 복된 대상과 교통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기쁨은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보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다만 어떤 이들에게는, 동일한 영광을 영원히 한결같이 보는 것이 그 완전한 즐거움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세속적인 의심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피조물의 허망함 속에서 행복을 찾는 자들은 늘 변화를 갈망합니다. 그들의 판단력은 심히 부패하여, 불변하는 선을 내심 갈망하면서도 변화하지 않는 것은 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잡한 망상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왜 동일한 것을 계속 누리는 일이 이내 지루해지는지, 그 불만족의 원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감각적인 것들은 그 선함이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모든 현존하는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므로 필연적으로 하나를 버리고 다른 것을 택하게 됩니다. 또한 그것들 대부분은 병든 욕구를 달래는 약에 불과하여, 절제하지 않으면 파괴적인 악이 됩니다. 먹고 마시는 행위는 허기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함이지만, 적정선을 넘어서 계속되면 역겨움을 유발할 뿐입니다.

대상이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감각 자체도 동시에 모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귀가 즐거운 소리에 집중하는 동안 눈이 아름다운 색채에 몰두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감각의 만족은 다른 감각이 제 고유의 선을 누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대상이 늘 즐거울 수 없으며, 마음은 채워지지 않은 욕망이 있는 한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피상적인 즐거움만 줄 뿐이어서 그것에 거는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많은 경우 그 안에는 깃든 선함이 주는 즐거움보다 더 불쾌한 악이 섞여 있습니다. 꿀에는 침이 따르기 마련이어서, 맹렬한 갈망으로 애타게 그리던 바로 그것을 얻었을 때 도리어 슬픔의 한숨을 내쉬는 일이 잦습니다.

천국에서는 이 모든 불만족의 원인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선이시며, 참으로 바람직하고 귀한 모든 것이 온갖 차원의 완전함으로 그분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영혼의 모든 능력은 가장 즐겁게 활동하며 온전한 행복을 누립니다. 그분을 누리는 기쁨은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소망마저 훌쩍 뛰어넘는데, 이는 그분이 잠시 빌려온 어떤 형상보다 본질적으로 더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시며, 우리의 생각의 폭이나 욕망의 깊이로는 그분의 완전함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순수한 선이시기에 모든 악을 이기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들의 기쁨을 감소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음이 분명합니다.

감정(affections).

성도들의 본질적인 행복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제나 온전히 사랑스럽고 즐거운 분이십니다.

승리하신 구원자.

이처럼 그들의 행복은 늘 같으면서도 늘 새롭습니다. 그들의 즐거움은 완전함 속에서 계속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지복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천국을 천국 되게 하는 본질입니다. 그곳에는 현재에 대한 권태도, 미래에 대한 염려도 없습니다. 만일 그 복된 상태를 잃을 가능성이나 일말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이는 그들의 모든 즐거움에 쓰디쓴 그림자를 드리워 한순간의 안식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행복이 고귀할수록 그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더욱더 사무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예비된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바를 지키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한히 견고하며, 그들의 영원한 존속을 참되이 보증합니다. 생명의 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이 생명나무로 보존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우월한 불멸을 누립니다. 천체의 운행과 시대의 흐름이 그들의 발아래 있으니, 그 어떤 것도 그들의 행복을 조금도 바꾸거나 좌우할 수 없습니다. 수백만 년이 흘러도, 하나님을 누릴 온전한 영원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 가장 바람직한 상태여! 지복과 영원이 나뉠 수 없이 결합된 곳이여. 오, 기쁨의 조화여! 천국의 온 합창단이 "이 하나님은 영원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노래할 때, 이는 그들의 영광에 무한한 무게를 더하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무한한 감미로움과 평안으로 배가시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을 온전히 누리며 안식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 안에서 다스리시고, 성도들은 그분 안에서 영원히 삽니다.

제 3 장. 자기 백성을 위해 천국을 계획하고 예비하신 근원적 원인이신 하나님의 자비. 공로의 원인이신 그리스도의 순종. 천국을 소유할 자들에게 요구되는 자격.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간 본성의 거룩한 변화와 그 이유들.

복음은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 영광을 태양 앞의 반딧불처럼 무색하게 만드는 천국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불타는 갈망으로 그 불변의 행복을 구하며 힘써야 하겠습니까? 이를 위해 우리는 천국의 원인과 그것을 얻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근원적 동인은 자기 백성을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천국에 합당하도록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순수하고 풍성한 자비입니다. 그것을 얻게 하는 원인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고난이 지닌 공로의 효력입니다.

이는 사도가 분명히 선포한 바와 같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I. 천상의 영광을 계획하고, 예비하며, 실제로 수여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비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아무런 이득도 얻지 않으신다는 점을 생각하면 분명해집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분은 가장 높은 계급의 피조물에게조차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영광의 관을 씌우실 때 그분은 단지 자신의 것을 주실 뿐, 그들의 것을 갚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들을 본성 그대로 두시거나 그들의 존재를 거두어 가신다 해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잃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해를 끼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께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하는 자들에게 불멸의 영광을 베풀도록, 또한 그분의 순전한 선의로 얻게 된 존재를 보존하도록 어떤 법이 그분을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피조물도 그분께 드릴 것이 없으므로, 아무도 그분에게서 가치 있는 대가를 받고 무언가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성육신하신 말씀으로서 그분 안에는 은혜의 질서에 속한 모든 선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누리는 것과 영원 속에서 소망하는 것 모두 그분을 통해 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분의 중보 사역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면 다음을 숙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 덕분입니다. 그분의 몸이 받으신

상처, 치욕의 흔적, 죽음의 자취가 바로 우리 영광의 샘입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이 우리 높아짐의 원인입니다.

만일 이것이 이 선물이 지닌 무상성을 약화시키는 듯 보인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 영광은 그리스도께는 마땅한 것이나 우리에게는 과분한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대속하시고자 성자를 중보자로 세우신 것 자체가 그분의 선하심이 이룬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이었습니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복음은 율법, 언약, 유언으로 불리며, 또한 '믿음의 율법'과 '영적 생명의 율법'으로도 칭해집니다. 복음이 율법이라 함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인간을 위해 지극히 자유롭게 세우신 새로운 법으로서 특정한 의무를 명하고, 순종에는 영생을 상으로, 불순종에는 영원한 죽음을 벌로 제시함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영원한 상태에 대한 재판과 결정이 바로 이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참된 율법의 특징입니다.

이 은혜의 율법은 완전한 무죄를 요구하며 아주 작은 태만이나 죄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선고했던 자연법과는 매우 다릅니다. 자연법의 엄격함과 가혹함은 복음을 통해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진실하고 꾸준한 순종을 받으시므로 '자유의 율법'이라 불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율법은 불변하기에, 우리가 영원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 요구되는 의무들을 결코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이 율법은 영적인 복을 사모하며 저급한 욕망의 과잉을 규제하고 제어해야 하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은 사탄이 인간에게 새긴 불행한 특징이며, 인간이 새롭게 되지 않는 한 그는 결코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이 새로워짐은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기적으로 포도주로 변했듯이 실체가 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영혼과 그 본질적 능력, 동일한 몸과 그 타고난 감각, 즉 창조주의 작품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더럽혀진 본성이 정결하게 되고, 행위의 원천인 기능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유비는 이 과정을 잘 설명해줍니다. 즉, 전인(全人)이 신적인 생명으로 살아나 그 생명에 부합하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의 능동적 원리가 그 안에 심겨 가시적인 행동으로 싹틉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에서 이 점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모든 기능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구성하는 모든 은혜가 주입됩니다.

정신은 영적인 빛으로 새로워져, 약속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진리와 선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는 것들의 실재와 두려움을 믿게 됩니다. 정신은 거룩함에서 가장 참된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가장 높은 영예를, 그분을 섬기는 데서 가장 위대한 공의와 탁월함을 발견합니다. 의지는 거룩한 사랑이라는 정화의 불꽃으로 새로워져, 이 땅의 어떤 바람직한 것보다 복된 궁극적 목적이 지닌 매력에 이끌려, 합당한 수단을 힘써 사용하여 그 목적을 추구하기로 결단합니다. 몸은 새로워진 영혼에 걸맞은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요컨대, 자연인은 지각과 결단과 행동에 있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하여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성경에 계시된 지극히 귀한 대상들에 대한 확고한 동의와 흔들리지 않는 헌신이 생겨나고, 새로워진 기능들로부터 진실하고 자발적이며 꾸준한 순종이 흘러나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중생시키는 은혜를, 한편으로는 일부 사람들의 형식적인 위선과, 다른 한편으로는 타고난 선행이나 일반 은혜의 능력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위선자는 세속적이고 비천한 이해타산이라는 외적 동기에 따라 행동하며, 양심이 마비되어 거룩한 것들을 무감각하게 다룹니다. 반면 거듭난 사람은 내적인 살아있는 원리에 따라 움직이며, 생생한 감정(affections)으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두려움에 억눌린 타고난 양심은 율법의 거룩함에 내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채 죄의 외적인 행동만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시키는 은혜는 샘의 근원을 정결하게 하므로 그 흐름 또한 순수하며, 감정(affections)을 가장 거룩한 명령들과 화해시킵니다.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도덕적 원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죄를 멀리하고 이성에 부합하는 칭찬할 만한 일들을 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도,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죄를 좋은 식물인 양 가지치기할 뿐 뿌리째 뽑지 못하며, 죄와 타협할 뿐 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의 실행은 억제될지라도 마음속 은밀한 정욕에 대한

부정한 탐닉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으며, 많은 의무가 하나님의 명령과 영광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더 낮은 동기에서 수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시키는 은혜는 영혼을 율법의 전적인 통치 아래 복종시켜, 율법의 모든 계명이 순수하고 영원한 순결의 샘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그 계명들에 한결같이 순종하도록 이끕니다. 이 은혜는 육욕을 죽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원리로부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중생시키는 은혜는 가장 세련된, 거듭나지 않은 도덕성과 구별됩니다.

요컨대, 일반 은혜를 통해 피상적인 종교적 색채, 일시적인 존중, 스쳐 가는 감정(affections), 영적인 것들에 대한 한때의 열렬한 노력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당사자는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시키는 은혜는 사람을 신적인 본성에 참여하게 하고 자신을 넘어서도록 고양하는 영속적이고 견고한 원리입니다. 이 거룩한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구주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의 유비는 이 일이 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영의 사역임을 의미합니다. 그 영은 생명의 원리를 전달하여 생명의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각인이며, 그 유일한 동인(動因)이자 원형이고, 신적 미덕들의 열매이자 형상입니다. 이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특별하고 탁월하게 나타내신 결과로 여겨집니다. 첫 창조에서 만물이 본래 무(無)로부터 지음받은 것처럼, 두 번째 창조에서는 은혜의 습성이 그것을 전혀 갖지 못한 영혼에 주입됩니다. 이는 마치 무(無)에서 이 위대하고 질서 있는 세계가 생겨날 준비가 전무했던 것과 같이, 그 영혼 안에도 참된 거룩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영혼 안에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부재할 뿐 아니라 그것에 맹렬히 저항함에도, 창조의 무적의 능력은 세상을 만드실 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피조물을 형성하는 데에서도 틀림없이 확실하게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로써 우리에 앞서 행하시는 중생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인간의 몸을 지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임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창조는 창조되는 주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효력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새 창조에서 인간은 영의 생명력 있는 감화가 자신의 모든 기능에 적용되어, 본성의 특성에 맞게 행동하도록 자신을 개혁하고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락한 인간 본성을 새롭게 하시는 과정에서 나타난 놀라운 은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 존재 구성상 천사와 같은 영과 지상의 동물과 같은 몸이 결합되어 영적 생명과 자연적 생명 모두에 참여하지만, 특별한 은혜를 부여받았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천사들과 더불어 죄를 지었고 몸은 짐승처럼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이 둘을 모두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십니다. 죄지은 천사는 결코 회개하지 않으므로 용서받을 수 없으며, 천국으로부터 영원히 회복 불가능하게 쫓겨납니다. 죽은 짐승은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짓고 죽더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으며, 그 몸은 썩지 않을 영광 가운데 일으켜질 것입니다.

이 거룩한 변화가 왜 불가결한지는 우리 구주의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분은 보편적으로 선언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단순히 거듭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다’고 하심으로써 그 불가능성이 절대적임을 힘주어 강조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육적 혈통을 대단한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순수하고 고귀한 혈통에서 났으며, 거룩한 언약의 인(印)이 육체에 새겨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올 세상에서 한몫을 차지하리라는 말이 속담처럼 통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이 헛된 자만심을 무너뜨리시며, 초자연적 출생만이 초자연적 유업을 받을 자격을 준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할례든 현재의 세례든, 참된 은혜가 동반되지 않으면 구원에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익한 표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며, 이 존귀한 관계는 양자됨과 중생이라는 두 가지 근거를 갖습니다. 신적 양자됨은 단순히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것, 곧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부여하겠다는 선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위격 안에 항상 거룩한 본성이 주입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인간의 양자됨과 구별됩니다. 인간의 양자됨은 양부의 이름과 가문의 문장, 명예와 재산을 물려줄 수는

있지만, 그의 지적·도덕적 품성을 전달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양자로 삼으시는 자를 신적 생명으로 낳으십니다. 더욱이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 높은 특권을 사셨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 이 존귀한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소생하게 하는 영은, 마치 몸에 대한 영혼처럼, 영혼에 대하여 생명과 힘, 아름다움과 움직임의 원리가 됩니다. 또한 다른 모든 은혜에 영향을 미치는 능동적이고 정화하는 믿음은 바로 그 생명의 연합을 묶는 띠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출생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타락한 것과 같이, 새로운 출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거룩하게 됩니다. 이 주제는 다음 장에서 별도의 제목 아래 더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를 성화하시는 은혜의 영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인치시는 양자됨의 영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 이 변화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을 누리기에 절대적으로 부적격하고 그 순결함에 반하는 자들이 어찌 자신의 사악함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한 부류는 죄 사함을 받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다른 부류는 정죄받아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 친히 세우신 의로운 질서를 스스로 깨지 않으시는 한, 거룩하지 않은 자를 당신의 영광 안으로 받아들이실 수 없습니다.

제 4 장. 구속주에 대한 믿음은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이에게 요구됩니다

이제 천국을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즉,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한 모든 사람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의 영생에 대한 권리가 달려 있는 '아들을 소유하는 것'은 곧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바로 그 영접 행위로 표현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복음의 교리들에 대한 단순한 지적 동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자라는 지극히 높고 영광스러운 위격을 지니셨다는 사실, 그 공로의 무한한 가치로써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자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 회개하는 죄인들을 자비와 긍휼로 품으시는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이 사신 은택의 탁월함에 그저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감정(affections)을 이끌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조건에 따라 그분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믿음은 정신과 마음을 포함한 온 영혼에 자리하며, 그리스도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중보자 직분의 각 부분은 서로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모든 효력은 동일한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지혜가 되어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치유하시고, 의가 되어 그들의 죄책을 없애시며, 성화가 되어 그들의 본성을 새롭게 하시고, 구속이 되어 마침내 그들을 무덤에서 이끌어내어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로부터 분명해지듯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구원하는 믿음은 그 본질상 강력하고 자비로우신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의존과 신뢰를 포함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분의 은총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하실 능력과 의지를 가지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믿음은 그분의 모든 거룩한 명령에 진실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결단을 포함하는데, 이는 마치 오른 눈을 빼고 오른손을 잘라내듯이 가장 즐겁고 유익해 보이는 죄까지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규범인 하나님의 약속들은 바로 이러한 조건들 위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하심이라.” 그리고 오직 의롭다 함을 받은 자만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을 피하려는 절대적 필연성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부분적으로만 원하고, 사랑으로 그분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려 하지 않는 자들은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며, 복음의 약속이 보증하는 영생에 대한 권리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피조물에 집착하며 그것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인간 파멸의 참된 원인입니다. 이 사실은 모든 비난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 순결과 선하심을 무한히 명백하게 변호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복(Happiness)을 위해 천국을 선택하는 일은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과제입니다. 모든 거룩한 권면은 바로 그 천국에 대한 전망으로부터 생명과 활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초상화를 그릴 때 머리를 가장 먼저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는 존귀와 탁월함에서 다른 부위보다 으뜸일 뿐 아니라, 나머지 부분들의 구도를 잡아주고 전체적인 비례와 조화를 이루게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전체 형상은 균형을 잃고 기괴해집니다. 이와 같이 인간을 도덕적으로 고찰할 때에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영혼과 그 궁극의 지복입니다. 영혼과 그 지복은 몸과 그 쾌락보다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기에, 우리 삶 전체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 그에 어긋나거나 무익한 것을 피하게 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데 이바지하는 일을 하도록 이끕니다.

이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므로, 나는 먼저 천국을 올바로 선택한다는 것이 그 성격과 효과 면에서 무엇을 포함하는지 보이려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그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는 몇 가지 강력한 동기를 제시할 것입니다. 이 선택은 세 가지 성격을 지닙니다. 첫째, 진실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둘째,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인 젊은 때에, 일찍 해야 합니다. 셋째, 확고하고 꾸준해야 합니다.

참된 행복을 선택하려면, 필연적으로 그 행복과 경쟁하는 거짓 행복을 멸시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한 영혼 안에 두 개의 지배 원리가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영혼은 동시에 두 대상에 온 힘을 쏟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판정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은 결코 화해할 수 없으며 그들의 명령은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하나님의 궤와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을 같은 제단 위에 두는 것이 불가능하듯, 천국과 세상이 타협하여 우리 감정(affections)의 몫을 똑같이 나누어 갖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마음속에 제시된 대상, 곧 우리를 행복하게 할 보편적이고 만족을 주는 선에 대한 생각이 희미하고 불분명하다면 의지는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명확하고 강력하게 제시될 때, 마음은 온전히 그것을 품도록 이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성을 조명하여 타락한 의지를 정화하고 변화시키며, 병든 감정(affections)을 치유합니다. 분별력 있는 눈을 지닌 현명한 상인은, 값진 진주, 곧 천국의 은혜와 영광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충분한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곧 인간을 하나님의 은총과 교제 안으로 회복시키시는 분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얻기 위해, 율법이나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특권의 협력을 단호히 경멸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영광스러운 복음은 세상에 비친 가장 밝고 기쁜 빛이며,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와 가장 놀라운 사랑의 계시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이로운 경륜의 총체가 펼쳐집니다. 이에 바울은 가장 생생한 감정(affections)으로 복음의 가치를 역설하며, 그것과 비교되는 모든 것을 가장 비천한 표현으로 일축합니다.

열정에 찬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감각적인 사람은 만족을 찾아 사방을 헤매며 눈에 띄는 사냥감은 무엇이든 쏘려 하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빛과 그것을 느끼는 열정을 지닌 영혼은 자신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모읍니다. 그리고 황홀경에 가까운 감정(affections)으로 그분을 누리기를 갈망하며, 그 노력 또한 갈망에 비례합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의의 태양이신 그분의 사역에 그 빛줄기가 미리 비치자,

회심한 이들 안에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 그들은 계시된 지복에 참여하고자 온갖 결단과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나태한 소망, 안일한 추구, 미적지근한 시도는 마음이 영적이고 영원한 선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았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목표가 진정으로 정해지면, 그 목표가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는 전적으로 감각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에게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자신의 비천한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얼마나 약삭빠르고 집요하게 구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교묘한 위선이든 고된 노력이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욕망을 채우려 합니다. 이익을 얻는 일이나 육욕적인 쾌락을 누리는 일에는 아무리 많은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위해 밤을 새워 낮을 늘리고, 안락과 쾌락을 위해 낮에 휘장을 쳐 밤을 늘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천국은 그저 곁가지로만 여겨질 뿐입니다. 마치 지성을 가진 영혼이 유배지인 이 땅에서 그저 몸과 함께 살면서 세상사를 처리하기 위해 주어진 것일 뿐, 본향인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고 다른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듯이 말입니다. 구원의 과업은 수행되든 방치되든 상관없다는 듯, 미온적인 감정(affections)으로 다루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유죄임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훨씬 덜 중요한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그토록 열정적이고 적극적이면서도, 인간의 더 높고 고귀한 목적에는 냉담하게 임하여 결국 그 목적을 완전히 좌절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결코 그 목적을 진지하게 의도한 적이 없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하는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선에 대해 상대적이고 종속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성부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이는 현세의 삶에 필수적인 양식으로서, 그것 없이는 우리가 내적, 외적 능력과 기능들을 발휘하여 그분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미와 풍요를 구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식탐을 채우기 위함이어서는 안 됩니다.

현세의 조건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바로의 꿈에 나온 것처럼, 어떤 이삭은 너무나 충실하고 무거워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고개를 숙였지만, 다른 이삭은 너무나 가늘고 메말라 불에 던져질 쭉정이 같았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이들은 이생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다른 이들은 아침마다 계속되는 갖가지 고난으로 단련을 받습니다.

이제 '모든 현재의 것은 장래의 행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이 무오한 원리가 마음에 자리 잡으면, 우리는 번영 속에서도 감정(affections)을 절제하여 세상을 하나님을 누리는 방편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역경 속에서는 인내할 뿐만 아니라, 그 역경이 천국을 예비하는 과정임을 알기에 오히려 기뻐하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비참의 근원은, 만물이 마땅히 종속되어야 할 영적이고 영원한 상태를 무분별하게 소홀히 한 채, 수단을 목적으로 전도시키는 사물의 도착적 남용에 있습니다. 즉 사랑과 갈망과 기쁨의 감정(affections)을 감각적인 것들에 쏟으며 그것을 자신의 참된 행복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타국에서 병들어 고향의 공기를 마셔야만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이, 귀향길의 즐거움에 이끌려 길 위에서 눌러앉아 끝내 고향에 이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인도 제도의 어떤 사람들은 달리기가 매우 빨라 어떤 말도 보조를 맞출 수 없다고 하는데, 그들은 식단에서 움직임이 느린 짐승이나 새, 물고기를 먹지 않는 철칙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나태함을 옮길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에 비유했듯이, 세상적인 것들은 그 본성상 영혼을 짓누르고 억눌러, 영혼이 앞에 놓인 경주를 힘차게 달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소명의 높은 상을 목표로 삼고 그 목적에 충실한 신자는 모든 일에 절제할 것입니다. 나아가 그는 세상적인 것들이 자신의 위대한 계획을 방해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뿐 아니라, 그것들을 그 계획에 이바지하도록 현명하게 관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요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천국을 우리의 지복으로 확고히 삼을 때, 우리는 고난의 상태와도 화해하게 됩니다. 현세의 악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증진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때, 그 목적의 사랑스러움과 탁월함이 악의 본성을 바꾸어, 그 자체로는 견딜 수 없던 재난들을 가볍고 쉬운 것으로 만듭니다.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박해받는 자가 지금 복이 있는 까닭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여러 가지 혹독한 환난 속에서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라고 말하며, 그것들에 가볍게 스칠 뿐이라는 태도로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자신이 꺾이지 않는 용기로 영광스러운

목적을 추구했음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우리를 위하여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를 진지하게 믿고 숙고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가장 불협화음처럼 들리는 부분들조차 조화롭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닌 준엄함과, 그분의 종들을 향한 마음의 부드러운 긍휼이 어떻게 양립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고통받는 자에게서 흐르는 무익한 눈물의 강을 말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벼운 짐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신자들이 겪는 가장 무거운 고난조차 하나님의 사랑과 모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며, 이 땅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은 내세에서 그들의 비참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육적인 대상이 인간의 목적으로 제시될 때, 그것은 은밀하게 그 형상을 인간에게 각인시켜 그의 생각과 감정(affections), 그리고 삶 전체를 육적으로 만듭니다. 시편 기자가 우상 숭배자들에 관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숭배하고 귀하게 여기든, 우리는 그것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들이 경배하는 우상만큼이나 어리석고 무감각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선이요 최종 목적으로 선택할 때,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그분의 영광스러운 거룩함의 형상이 영혼에 새겨져 영혼은 경건하게 됩니다. 마음은 그분의 매력적인 탁월함에 이끌리고, 삶은 그분을 향하게 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므로, 더 상세히 증명하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자체로 목적으로서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랑의 정도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수단에 대해서는 많고 적음을 따질 수 있으나, 목적 자체에 대한 사랑은 광대하고 무한합니다. 의사는 자신의 기술의 목적인 환자의 완전한 건강 회복을 위해 힘씁니다. 명예나 부를 구하는 자는 어중간한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이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일을 밀어붙입니다. 학문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 고귀한 열망으로 지식에 있어 다른 이들을 능가하고자 분투합니다. 요컨대, 어떤 것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그것을 현재에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 천국을 누리는 것을 진정 자신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사랑은 그를 이 땅에서 가능한 한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 되도록 열정적이고 부지런하게 만들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단계를 밟아 올라가 자신의 목표와 갈망의 정점에 도달하려 애쓸 것이며,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지고, 그리스도가 순결하신 것처럼 순결해지려 힘쓸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이와 관련한 놀라운 본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의 진보는 위대했지만, 그것 때문에 목적을 추구하는 데 나태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구주의 본을 얻기 위해, 즉 그분의 죽음과 생명의 능력을 느끼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붙잡으셨듯이 자신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과 삶 속에서 신적인 형상을 발전시키기 위해 매우 부지런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종교에 미지근한 감정(affections)을 가진 이들—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증스러운 특징입니다—의 소망이 얼마나 헛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좇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을 자신들의 육적인 안일과 이익을 위한 현명한 원리라고 여깁니다. 그들에게 적당한 수준의 악은 용납될 수 있으며, 오직 과도함만이 정죄될 뿐입니다. 그들은 종교에서도 적당한 수준에 만족하며,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교회처럼 오만하고 안일합니다. 그들은 마치 불타는 적도와 얼어붙은 극지방 사이의 온화한 지대를 발견한 듯이 봄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수준을 넘어서는 모든 것을 광신적이거나 분별없는 열심으로 치부하고, 그보다 못한 모든 것을 죽은 듯 차가운 불경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눈에 띄게 나은 이들은 위선자라거나 불필요하게 엄격하다고 견책하고, 눈에 띄게 못한 이들과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비교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얼마나 쉽게 자신을 속이고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과도하게 누릴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닮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지복인데, 어찌 우리가 그분을 지나치게 닮을 수 있겠는가?

실제로 도덕적 미덕은 습관적 성질의 중용이 아니라, 악덕이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감정(affections)과 행위의 중용을 지키는 데 있다. 용기는 비겁과 무모한 대담함 사이의 중용에

있지만, 용감한 습관이 확고해질수록 그 미덕은 더욱 탁월해진다. 관대함은 무분별한 낭비와 비열한 탐욕 사이에, 인내는 여린 섬세함과 어리석은 무감각 사이에 자리한다. 이처럼 철학적 미덕은 두 가지 사악한 기형(畸形) 사이에서 순수하고 온전한 아름다움으로 빛난다. 많은 이들의 종교란 기독교라는 옷을 걸친 이교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중용은 창조된 제한된 선(善)을 대상으로 하는 하위 미덕들에만 속하며, 그 대상의 본성적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 신적 은총은 지고선(至高善)을 대상으로 하기에, 그 완전성은 가장 탁월한 경지와 그 경지에 이르게 하는 가장 강렬한 감정(affections)과 활동에 달려 있다. 믿음은 순종에 있어서, 소망은 확신에 있어서, 사랑은 열정에 있어서 결코 과할 수 없다. 대상이 무한할 때, 중용은 오히려 악덕이다. 겸손은 아무리 낮아져도 지나치지 않으며, 사랑은 아무리 높아져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가 무(無)에서 지음 받았고 죄로 더럽혀지고 타락했으며, 본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불완전하다는 점을 성찰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해 아무리 낮게 생각해도 지나친 법이 없다. 또한 주권적 존재이시며 완전성이 무한하고 무한히 사랑스러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인 이상, 우리 감정(affections)에 어떤 한계나 척도를 두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힘을 합하여,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정신과 온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며, 그분께 사랑받고자 힘써야 한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면서도 사도나 순교자들의 탁월한 은총이나 영광의 경지에는 이르려 하지 않으며, 천국에서 더 낮은 자리에 만족하고 덜 엄격한 신앙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이런 기만은 로마 가톨릭주의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가톨릭주의는 우리 구주의 많은 가르침을 약화시켜, 그것이 영생을 얻으려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의 의무를 지우는 율법이 아니라 '완전의 권고'(Counsels of Perfection)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즉, 그것들을 행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행하면 공로가 되어 더 풍성한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불결한 방종으로 육적인 감정(affections)을 만족시키더라도, 그 과정에서 연옥의 맛을 보는 것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보편적으로 존중하고 그것들을 동등하게 지키려 애쓰는 것보다 더 쉬운 조건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죽음은 이 모든 연약하고 비참한 구실들을 논파할 것이다. 하늘의 성도들이 별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르듯 서로 다른 광채로 빛날지라도, 그곳에는 오직 성도들만 있을 뿐이다. 자신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애통하지 않고, 더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갈망하며 힘쓰지 않는 자는 결코 참으로 선했던 적이 없는 자이다. 자기 달란트를 낭비하지는 않았으나 더 나아지게 하기를 게을리했던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겼다. 지옥의 형벌에는 등급이 다르지만, 그곳에서 가장 고통이 덜한 자라 할지라도 영원히 비참하다. 요컨대, 육체와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서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힘쓰지 않으면서, 천국의 순수하고 영광스러운 지복을 진심으로 선택했고 또 그것을 받을 감정(affections)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모순이며 괴이한 일이다.

제 5 장. 천국의 선택은 일러야 한다

인간이 회개를 미루는 변명들. 그 무한한 위험성.

둘째, 영원한 지복의 선택은 우리 생애의 황금기인 젊은 시절에 이루어져야 한다. 의무의 규칙과 이성은 우리에게 젊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우리 시간과 힘의 첫 열매를 그분께 바치라고 명한다. 유혹적인 대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감각이 온전하여 그것들을 누리기에 가장 적합하며, 선택의 능력이 가장 왕성할 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율법 제정자이신 그분께 순종하고, 헛된 쾌락보다 순종의 보상인 천국에서 그분을 누리는 것을 앞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육체와 세상이 마음을 빼앗으려 강하게 유혹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심히 존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피조물의 온갖 매력보다 그분의 탁월하심이 존경과 감정(affections)에서 우위를 차지할 때, 그것은 성자께서 그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증표가 된다. 또한 모든 유혹이 가장 매력적이고 자신이 그것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경멸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자기 사랑의 진실함과 힘을 선포하는 것은 인간의 영에 말할 수 없는 만족을 준다.

그러나 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의무를 저버리고 행복을 뒤로 미루는가! 그들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악한 날들이 이르기 전, 곧 죄지을 수 없게 되기 전에는 천국을 위해 살기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며, 그때 가서 회개할 수 있다고 어리석게 단정한다. 나는 이 무한한 위험을 간략히 드러내고자 한다.

마귀는 완벽한 궤변가다. 현재의 신념이 지닌 힘을 교묘히 피하고 인간을 죄와 파멸에 빠뜨리기 위해 그가 흔히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계략은, 영혼의 위대한 과업을 나중으로 미루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는 우리 첫 조상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어리석게 말하지는 않는다. 그 유혹은 너무나 명백해서 아무도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죄인들의 안위를 방해하는 초자연적 진리의 증거와 확실성이 때로 의도적인 의심에 가려 희미해질 수는 있어도, 죽음이 불가피하다는 인류의 온전하고 강력한 확신에 저항할 수 있는 계략은 없다. 본성은 혐오하며 죽음에서 움츠러들지만, 이 슬픈 진리는 너무나 명백하여 모든 이의 동의를 강제한다. 명목상의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치명적인 필연성에서 특권으로 면제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산 채로 방부

처리되어 인위적으로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상상할 만큼 허황되지는 않다. 궁전도 오두막만큼이나 무덤에 가깝다.

그러므로 마귀는 인간의 마음속에 장수에 대한 헛된 희망을 키운다. 어떤 광학 렌즈가 불과 두세 걸음 떨어진 벽의 색채 이미지를 길고 깊은 화랑처럼 보이게 하여 시각을 속이듯, 유혹자는 위험한 계략으로 치명적인 종말이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상상하게 한다. 그는 사람들의 믿음 속에서 죽음의 확실성을 약화시킬 수 없으므로, 그 이미지를 기억에서 지워버림으로써 그것이 영에 남길 수 있는 인상을 줄이려 한다.

사람들은 구원에 무관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지만, 막상 그런 상태로 죽음을 맞이할 엄두는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혹자는 양심의 가책을 잠재우려고 겉으로만 순응하는 척하는 이들에게 속삭입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할 마지막 시간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다고, 이 세상의 삶을 마친 뒤에 저세상을 준비할 '편리한 때'가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치 회개란 유혹도 없고 철회할 위험도 없는 마지막 순간에 하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 또한 교묘한 아첨꾼이어서, 나중에 경건하게 은퇴하여 진지한 신앙인이 되겠다는 헛된 결심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파멸로 이끕니다. 이처럼 손쉽게 자신을 합리화하며 육체의 당면한 욕망을 채우고, 한 허망한 일에서 다른 허망한 일로 전전하다가, 마침내 죽음이 그 오만한 자를 덮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 시인 알카이오스가 계절마다 핑계를 대며 자신의 방탕을 정당화했다는 이야기는 매우 적절한 예가 됩니다. 그는 봄이면 자연이 소생하는 기쁨의 표시로 마음껏 술을 마셔야 한다고 했고, 여름이면 더위를 식히고 갈증을 풀기 위해, 가을이면 포도 수확을 기념하기 위해, 겨울이면 피와 기운을 얼어붙게 하는 추위를 쫓기 위해 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인생의 각 시기(마치 한 해의 사계절처럼)마다 회개를 미루는 핑계를 대고, 구원을 등한시하는 자신의 완고함을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유년기의 허영, 청년기의 쾌락, 중년의 분주함, 노년의 쇠약함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뒤로 미루게 하는 변명거리가 될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일깨워 당장 영원한 행복을 선택하고 추구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시간의 끝이요 영원의 시작인 그 시간을 늘 경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그런 상태로 죽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맹세로 확증되었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병든 것으로 제물 삼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아라. 그가 너를 기뻐하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유다는 주의 관대함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스승을 배반하도록 부추김을 받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그의 배신을 참을 수 없이 가중시켰고 그의 희망을 꺾어 버렸습니다. 번영할 때 은혜의 초대를 거절하다가 의로우신 심판주께서 판결과 형벌을 위해 오실 때에야 비로소 자비를 애원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도다. 도리어 너희가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닥치고 너희의 멸망이 회오리바람같이 이를 때에,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를지라도 나는 대답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나를 부지런히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리라. 이는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주를 경외하기를 택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경우입니다. 죄 많은 피조물이 땅의 모든 위로에서 버림받고 하늘에 구원을 청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분노, 경멸과 진노뿐입니다. 신랑 맞을 준비를 게을리했던 어리석은 처녀들은 마침내 기름이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구걸하고,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라고 부르짖었으나 헛수고였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는 엄하고 단호한 말씀이었고, 그들은 영적인 기쁨에서 영원히 제외되었습니다.

셋째, 병상에 누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화해하려는 생각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덧붙여 설명하겠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므로, 자신의 길을 성찰하고 자신을 정확히 시험하며 거룩한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갈 능력이 가장 온전한 때, 즉 가장 평온하고 분별력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병상에 있을 때는 이 일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님이 명백합니다. 어떤 병은 사람의 정신을 마비시켜 영의 모든 능력을 무디게 하므로, 병자는

동물적인 기능으로만 감지할 뿐입니다. 또 어떤 병은 극심한 고통을 주어 영혼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성찰하려는 생각을 완전히 흩어 버립니다. 폭풍이 절정에 달했을 때 선장이 병들어 아무런 지시도 내릴 수 없다면, 배는 바람의 광기에 내맡겨져 기적적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몸의 기질에 폭풍이 몰아칠 때 영혼도 그에 동요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진지하게 할 수 없다면, 짧은 고통을 지나 영원한 형벌로 떨어질 위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설령 병이 견딜 만하다 해도, 감각과 양심이 모두 쇠약해진 사람이 영혼의 잔인한 원수와 맞서 싸우는 것이 어찌 합당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참된 화평을 구하는 모든 사람은 사탄의 맹렬한 분노와 공격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과 힘이 있을 때 그의 공격에 대비하여 하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들의 회복 약속은 모두 공허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비 오는 날이면 습기 때문에 물에 녹는 듯 보이지만 실은 여전히 단단한 대리석과 같습니다. 그들의 모든 개혁 약속은 요란하지만 헛될 뿐입니다. 만일 이들이 이처럼 가시적인 시련과 자기 발견에 이르기 전에 죽었다면, 그들은 참된 회개자라는 평판을 지닌 채 다른 세상으로 건너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와 눈물, 그리고 너그러운 약속이라는 회개의 외적인 표지로 남들을 속였고, 경각심을 느낀 양심의 내적 작용으로 자기 자신마저 속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이런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자비의 약속을 적용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오류는 무서운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아편과도 같은 신학이 잠시 정신을 진정시킬 수는 있겠으나, 그 효력은 곧 사라지고 교만했던 자는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임종을 앞둔 사람이 참된 눈물과 거짓 없는 꾸준한 감정(affections)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과연 자신의 진실성에 대해 평안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살피시고 심판하시는 주께서는 그를 받으시겠지만, 정작 당사자의 소망은 얼마나 흔들리고 불안하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그의 가슴을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불확실한 선고를 기다리는 일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럼에도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이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셨으니 자신도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그런 일은 지극히 드물고 예외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부자의 구원에 관해 하신 말씀, 곧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말씀은 이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말씀에 사도들은 놀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외쳤습니다. 구주께서는 그 어려움을 완화하시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상기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스스로 지옥 갈 준비를 하며 죄의 길에서 줄곧 완고해진 사람이 마지막에 갑자기 준비되어 저 위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직 기적이 그러하듯 무한한 능력의 효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므로, 우리가 그런 기적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불확실성에 내맡겨도 될 만큼 사소한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사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사형, 투옥, 추방 선고를 막기 위해 얼마나 조심합니까? 잠시의 이익을 얻으려고 얼마나 부지런히 애씁니까?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에는 어찌 그리 소홀합니까? 안일한 자는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그러셨듯, 나에게도 마지막에는 회개를 주시겠지"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은 영혼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감히 불멸하는 영혼의 무게를 단지 은혜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가능성에 걸 수 있습니까? 어떤 이성적인 사람이 치명적일 수 있는 병을 방치하고 막다른 처방에만 의존하겠습니까? 영원한 구원이나 영원한 파멸을 '어쩌면'이라는 요행에 맡기는, 이토록 잔인한 무관심과 무모한 부주의의 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섭리에 맡긴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죽음에 임박해서야 회심하여 구원받은 이들의 영광스러운 선례 몇몇에 기대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묻는 것이 마땅합니다. 천국에 무사히 도착한 한 사람에 비해, 그 깊은 골을 건너다 끝내 실족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병들었을 때 타고난 기력이나 약의 효험으로 병을 이기리라 희망하며, 죽음을 직접 느끼기 전까지는 보려 하지 않고 회개를 미루다가 돌이킬 수 없이 때를 놓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헛된 생각에 눈이 멀어 하나님께서 자신과 화목하셨다고 믿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된 평안은 고뇌하는 영의 폭풍보다 더 끔찍합니다. 속이는 근거 위에 희망을 두는 자들은 구원에 필요한 것을 소홀히 하기에 가장 희망 없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무지의 구름에 싸여 어둠의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감각적이고 안일한 망상의 꿈속에서 살던 이들이 마지막에 이르러 혹독한 고난이나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양심이 깨어나 자기 죄책의 깊이를 들여다볼 때, 다른 극단으로 치우쳐 절망 속에 죽어가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는 완고한 양심뿐만 아니라 소심한 양심도 이용합니다. 고독한 장소뿐 아니라 소란한 극장도 그의 무대가 되며, 그는 교만과 절망이라는 상반된 길을 통해 죄인들을 똑같은 종국으로 이끕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수법을 바꾸어, 유혹자에서 고발자로 돌변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죄를 희미하게 보던 자들이 갑자기 죄를 지나치게 날카롭게 보게 되어 혼돈의 심연에 삼켜지고 맙니다. 이런 자들의 상태는 지극히 비참합니다.

광견에 물린 사람들에게서 관찰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면서도 물을 몹시 두려워하여, 물을 보기만 해도 갑작스러운 경련을 일으키다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들의 치료는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지극히 어렵습니다. 이는 절망에 빠진 영혼을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상징입니다. 격노한 양심이 아픈 곳을 찌를 때, 죄인은 격정과 공포에 사로잡혀 용서를 뜨겁게 갈망하면서도, 도리어 두려움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자비를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북돋우려고 무엇을 제시하든, 그는 그것을 자신의 불신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길 잃은 세상을 구속하기에 충분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공로를 제시하면, 그는 자신이 그 자비를 왜곡되게 남용하고 그 공로를 무시했다는 생각에 절망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복음의 가장 귀한 약속들이 그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 구주께서 자신을 배반한 유다를 '친구'라는 다정한 칭호로 맞으셨을 때, 그 칭호가 오히려 그의 배신과 사악함을 가장 날카롭게 질책하는 말이 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이로써 회개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병상과 임종의 순간까지 미루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분명해집니다. 그때는 죄를 기억하는 것도, 잊는 것도, 양심이 각성하는 것도, 무감각한 것도 똑같이 파멸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가 죄의 길을 살아온 이들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것을 낙심시키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때에도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돌아오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비할 데 없이 부드러운 다양한 형식과 표현으로 제시합니다.

잃은 양을 되찾았을 때, 마치 보물을 찾은 듯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탕자는 욕정과 사치로 재산을 탕진하고 혹독한 궁핍에 처해서야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반역을 부끄러워하며 자기 비참을 깨달았고, 그 비참함에 떠밀려(처음에는 더 순수하거나 고결한 원리에서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할지 시험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헛된 기대가 아니었으니, 그는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의 결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리스도께서 그 비유를 통해 의도하신 바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여 주고, 죄의 견딜 수 없는 무게를 느끼는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자비와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그러나 안심하고 습관적인 악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청빙을 오만하게 물리치는 죄인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즉 그들이 제 11 시에 포도원에 들어와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죄를 용인하고 비호하여 그들을 멸망으로 더욱 완고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독은 음식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독을 몰아낼 때까지 온몸을 격렬하게 만드는 해독제로 고쳐야 합니다. 그처럼 타락한 영혼들에게는 오직 주님의 두려움만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논의를 마치며,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 곧 성부이시자 심판자이신 그분의 모습을 진지하게 숙고합시다. 그리하여 정의와 거룩함이 자비와 마찬가지로 그분의 본성에 본질적임을 깨닫고, 우리의 감정(affections)이 그에 합당하게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성부를 부른다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자만과 절망은 하나님 앞에 심히 무례한 것이며 영혼에 해롭습니다. 자만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무너뜨리고, 절망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조화를 이룬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에 탁월한 영향을 미칩니다. 배가 안전하고 순탄하게 항해하려면 밸러스트(안정추)와 바람이 모두 필요합니다. 바람이 없으면 배는 나아갈 수 없고, 밸러스트가 없으면 돌풍이 불 때마다 전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망과 두려움은 우리를 영원한 지복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소망 없는 두려움은 영혼의 활력과 기민함을 마비시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 없는 소망은 영혼을 헛되고 태만하게 하여 온갖 달콤한 유혹에 넘어지기 쉽게 만듭니다.

요컨대, 우리는 용서와 은혜에 관한 복음의 약속이 지닌 본질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 약속들은 조건적이며, 오직 회개하는 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우리의 칭의의 조건인 거짓 없는 믿음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며, 보편적 순종의 살아있는 원리가 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제때에 모든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오염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제 6 장. 우리의 선택은 반드시 굳건해야 합니다

보상을 얻기 위해 거룩한 생명의 견인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늘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돌아서게 하려고 공격하는 여러 유혹들, 견인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자만과 사악한 영적 낙심에 대한 경고를 다룹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선택은 모든 유혹을 이기는, 확고하고 지속적인 것이어야 함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영적 생활의 두 가지 주된 원리는 잘 시작하고 잘 마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영원한 행복이라는 주된 설계를 확고히 세우고, 단호한 결의와 마음의 확고한 작정으로 그것을 굳건하고 꾸준하게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위해 살고,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요구한다면 기꺼이 용기를 내어 천국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견인은 영원한 상급을 얻으려는 모든 이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첫째, 성경을 통해 구원을 동반하는 견인의 개념을 제시하고, 둘째, 그것이 왜 그토록 엄격하게 요구되는지 고찰하겠습니다.

1. 구원에 이르는 견인은 영혼 안에 은혜가 영구히 거주함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모든 은혜의 사슬, 곧 성화시키시는 성령께서 처음에 그리스도인에게 불어넣으신 거룩한 습관들의 연합으로 구성됩니다. 영생이 믿음이나 사랑이나 소망에 약속될 때, 그것은 그 은혜들이 마음에 심겨 마침내 번성하리라는 가정 위에 주어진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도록 충성하는 자는 생명의 관을 얻을 것입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는 사랑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끝까지 견고한 소망은 영광스러운 결실로 완성될 것입니다. 만일 은혜가 자리를 찬탈하는 정욕에 의해 병들면 배교가 뒤따를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지닌 탁월함과 순결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성령 안에 사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즉, 그들에게 전달된 신적 원리의 활력과 효력을 거룩한 생명의 뚜렷한 행로를 통해 드러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미덕은 미덕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습니다." 단순히 악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거룩한 생명의 모든 적극적인 행위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무를 이행할 때 온전한 경건이 표현되며, 바로 거기에 은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전에 빛을 받고 결심했던 바와 정반대로 타락한 자들을 회개를 통해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성령으로 참되게 거룩해진 자들이 중생 때 그들 안에 심긴 모든 은혜로운 습관들을 완전히 잃는다는 것은 얼마나 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교도들조차 수치스럽게 여길 만큼 추악하고 하나님의 원수들이 비방하게 만든 죄, 곧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회개로 회복되었습니다. 복음은 회심 이전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회심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한 치유책도 제시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성부 앞에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은 신자의 양자됨을 철회하시거나 칭의를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수치스러운 무질서에 관해서는, 진실하고 실제적인 회개가 있기 전까지는 새로 지은 죄책에 대한 용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상속권을 박탈당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의 권리는 그 위로를 느끼는 감각 면에서 빛을 잃고 정지되었다가, 새로워짐을 통해 그 순결한 유업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될 때 비로소 회복됩니다.

지상의 교회에서 범죄자를 출교시킬 정당한 사유가 되는 죄들은, 회개가 없다면 천국에서도 그를 제외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도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이러한 종류의 죄를 지으면 성도의 교통에서 끊어져야 하며, 그 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그들을 배제하는 장벽이 됨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이런 죄들 중 하나에 빠진다면, 비상한 회개를 통해 용서받을 준비가 되기까지는 용서를 얻을 수도,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평안한 소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만이 영화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모든 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 곧 은혜의 생명 원리가 남아 있는 한, 양심의 눈을 피할 수 없는 악명 높은 죄들은 그 악성에 비례하는 찔림과 슬픔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그 죄들을 미워하고 버리게 만들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견인은 주로 우리 인생길의 끝, 곧 목표 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잠시 중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새로운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우리의 복된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2.

이제 두 번째 논점, 곧 영생을 얻으려는 모든 이에게 왜 견인이 필수적인지에 관한 이유를 고찰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시련 속에서도 순종을 통해 끈기를 보임으로써 그 진실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은 생명의 조건으로 죄 없는 순종을 요구했지만, 복음은 진실성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진실성이 없다면 보상을 받을 권리를 주는 약속도 없습니다. 여기서 진실성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하는데, 이 사랑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 율법이 명하는 모든 의무와 그분의 섭리가 정하신 모든 시련에 복종하게 합니다.

이에 대한 탁월한 본보기는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 손으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것은 한 번의 칼로 두 제물을 바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생명이 이삭에게 달려 있었고, 그는 자신보다 이삭 안에서 더 소중한 삶을 살았으며, 그의 모든 기쁨과 사라를 통해 얻을 후손 모두가 이삭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극심한 감정의 동요와 본성의 저항을 겪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지체 없이 자기 의무를 이행하고자 나섰습니다. 인간 본성의 모든 부드럽고도 강력한 감정을 이겨낸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승리를 누가 본 적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전례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모방할 선례도, 뒤따를 모범도 없는 독보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의 진실성에 대한 이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은 후에야 천사는 하늘에서 선포했습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또한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고난 속에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생명보다 달콤하고 죽음보다 강했습니다.

물론 순교자들이 고난 아래서 보인 태도에는 놀라운 차이가 있었지만, 그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견인하게 하는 은혜가 명백히 드러났으니, 다만 그 작용 방식이 다양했을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장 아름다운 청춘의 시절에 불과 칼, 고문하는 자들과 고문 도구들을 마주하면서도, 마치 스데반처럼 하늘이 열리고 구주께서 자신들을 맞아 면류관을 씌워주시려는 것을 보는 듯 생생한 기쁨과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의 노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크리소스톰이 증언하듯이, 수많은 다른 이들은 재판정으로, 극장으로, 죽음의 자리로 여러 두려움의 기색을 안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사나운 짐승들이 포효하는 소리를 들을 때 공포에 사로잡혔고, 사형 집행인들과 고문 도구들을 보자 창백해지며 몸을 떨었습니다. 육체는 "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는 듯했으나, 연약하고 희미해져 가는 가운데서도 영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영은 그 본성적 갈망을 바로잡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월식 때의 달이 비록 어두워져도 태양 빛을 받아 가득 찼을 때와 마찬가지로 규칙적인 궤도를 운행하듯, 이 외로운 순교자들도 위로의 밝은 빛을 모두 빼앗긴 듯한 상황에서도 진리에 대한 고백을 끝까지 견지했습니다. 기독교를 부인하는 말 한마디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어떤 고문도 그들의 입에서 그 말을 끌어낼 수 없었으며, 그들은 모든 것을 묵묵히 인내했습니다. 이들에게서 본성의 싸움과 은혜의 놀라운 능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의 두려움과 육체의 저항, 그리고 세상에서 바랄 만한 모든 것에 대한 감정(affections)을 이겨냈으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승리였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그들은 박해자들의 잔인함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에게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는 성령의 증언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행위와 고난으로 믿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신실해 보이는 이가 얼마나 많은가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처음에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희망차게 싹을 틔웠지만, 환난이 닥치자 진실성의 뿌리가 없어 이내 시들어 버렸습니다.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진 씨앗은 세상의 염려와 쾌락에 막혀 질식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속의 어떤 정욕이 감정(affections)과 뒤얽혀 배교를 낳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광스러운 시작을 뒤로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가요. 종교의 용병들, 즉 내면의 생명과 건강의 원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외적인 빛깔에

불과한 열심을 가진 자들은 이득이 사라지면 경건의 고백마저 내버립니다. 나아가 스스로 진실하다고 여겼던 이들 중 일부도 위험이 닥치면 그 결심이 병든 깃털처럼 힘없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는 마치 어리석은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의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채 웅장한 구조물을 짓기 시작했다가, 끝내 완성하지 못하고 자신의 수치 속에 기초만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깨닫고는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했으며, 영혼을 잃는 대가로 세상을 지키려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고양된 감정(affections)으로 경건의 길에 나섰다가, 관능적인 정욕과 유혹에 넘어가(그리하여 더 큰 죄책을 지고) 첫사랑을 버리고 육체로 마감합니다. 그들은 드높은 신앙고백에서 추락하지만, 달콤한 쾌락에 빠져 그 추락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진실했던 적이 없으며, 천국에 대한 권리를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진지하고 깊은 성찰에 뿌리내리지 않은 채 충동적인 결심을 했고, 한순간 불꽃처럼 뜨겁게 활동하다가 이내 심한 경박함으로 옛 정욕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사도는 그런 자들에 대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불에서 내린 끓는 물이 한 번도 데워지지 않은 물보다 더 단단히 어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불로 인해 미세한 입자들은 증발하고, 더 무거운 지상의 입자들이 남아 냉기를 더 잘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의 능력을 감정(affections)으로 체험했다가 그 거룩한 열정을 잃어버린 자들은 자신의 죄 속에서 더욱 완고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거두시는 것은 정당하며, 잠시 쫓겨났던 악한 영은 일곱 다른 귀신을 데리고 돌아와 그 폭정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의 확실성은 우리가 거룩한 상태에서 견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어지므로, 우리는 부패한 자신감과 사악한 낙심, 곧 자신을 신뢰하는 교만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를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교만을 막으려면, 아무 유혹도 없이 스스로의 동기로 천국에서 죄를 지은 타락한 천사들이 얼마나 두려운 본보기가 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유혹은 우리를 원수에게 넘겨주며, 우리가 마침내 그 원수 중 하나에게라도 패배한다면 승리와 면류관을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자만이 영혼을 마귀의 덫에 빠뜨리듯,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불신하고 구원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노력에 그분이 함께하시리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악한 낙심 역시 매우

해롭습니다. 이는 열심을 꺾어, 구원이라는 목표에 이르는 방편들을 아예 외면하게 만들거나, 사용하더라도 불편한 마음으로 마지못해 사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은혜가 미약하고 본성이 변덕스러워 반역하기 쉽다고 생각한 나머지, "내가 언젠가 사울의 손에 망하리라"고 했던 다윗처럼 자신의 처지에 대해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이런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견인은 단지 조건일 뿐 아니라 은혜 언약의 특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 언약은 진실한 신자가 그 조건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영적 힘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은혜가 단지 자유의지의 산물이라면, 가장 열렬한 결심이라도 압도적인 유혹이 닥치면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앗수르 왕들이 여러 민족의 신들, 곧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파괴했다고 인정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이며, 성도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영적이고 영원한 선을 선택하도록 이끄시고, 그들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붙드셔서 신실하게 자신의 의무와 지복에 매달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리라"고 지극히 은혜롭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기초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처럼 변덕스럽다면, 신자들은 그분의 호의를 잃을까 염려하며 의심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군주에게 의존하는 이들이 인간 의지의 본성적 변덕 때문에 새로운 총신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까 염려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들을 흠 없이 보전해 주시리라는 것을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확신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마음을 열고 모든 저항을 이겨내는 내적인 소명을 말합니다. 이는 마치 천사가 빛을 비추며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 그의 옆구리를 쳐 깨우고, 쇠사슬을 풀어주고, 간수들을 지나 문을 열어 자유를 되찾아 준 것과 같습니다. 죄인의 유효한 소명은 선택하시는 긍휼의 가시적이고 확실한 결과이며,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에 변함이 없으시고 성화를 통해 택하신 모든 이를 영광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같은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구속주께서 그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사...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처음에 부어주신

은혜는 성령에 의해 계속 활성화되는데, 성령은 '성도의 기업의 보증'이라 불립니다. 그러므로 힘이 뛰어났던 천사들조차 처음의 순결과 영광의 상태를 지키지 못하고 타락과 비참에 빠졌지만, 참되고 겸손한 신자들은 비록 연약하고 수많은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파괴적인 악에서 보존되어 변치 않는 완전한 상태로 일으켜 세워질 것입니다. 이는 마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흙덩이가 솟아올라 창공에서 빛나는 것만큼이나 참으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스스로는 선한 생각 하나도 할 능력이 없다고 고백했던 사도조차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자신의 의무 범위 안에서)라고 의기양양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능력은, 자신의 궁극적이고 복된 목적을 진실하게 결심하고 추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확실한 도움의 샘입니다.

제 7 장. 인간이 어떻게 거짓 행복을 선택하고 참된 행복을 거부하게 되는가. 우리의 선택을 바로잡기 위한 지침들. 감각과 정념은 최악의 조언자다. 다수의 모범은 전염성이 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올바로 정할 것인지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영원한 결과를 낳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온 정신을 집중하여 숙고해야 합니다. 지혜의 권고를 따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는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만일 오염되지 않은 이성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 거짓된 헛됨과 실질적인 지복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자연 상태에서는 지성과 의지가 너무나 부패하여, 감각을 즐겁게 하는 당장의 것들이 마음을 강탈하여 굴복시키고 맙니다. 인간은 강요당해서가 아니라 속아서 파멸에 이릅니다. 교활한 유혹자는 아름다운 시험을 통해 승리합니다. 이는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었다는 점과 그 작용 방식을 숙고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영은 지성적 분별 기능을 하는 능력으로 이성의 자리이며, 사물의 속성을 비교·판단하고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몸은 감각, 공상, 정념 같은 하위 기능들을 포함하며, 현재의 일들에 관여합니다. 혼은 선택의 원리인 의지로서, 다른 두 부분의 중심에 자리하여 모든 것이 그곳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영적 선과 육적인 선이 선택을 위해 제시될 때, 의지는 마땅히 정신의 인도를 받아야 하며 자신의 권위로 하위 정념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아, 정신은 본래의 빛과 순수함, 경계심과 온전함을 잃고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며, 무지와 오류와 육적인 편견에서 비롯된 논리로 육체를 변호하기 일쑤입니다. 이성적 욕구인 의지는 감각적 욕구에 자발적으로 종속되어 노예가 되고 맙니다. 이로 인해 영광스러운 천국은 경멸당하고 현세가 선택되는 것입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악명 높은 한 화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이교 신전에 세울 여신들을 그리는 일을 자주 맡았는데, 그때마다 늘 자신이 가까이하던 창녀들의 얼굴과 안색을 본떠 그렸습니다. 자신의 불결한 사랑의 대상들이 미네르바, 유노, 다이아나 등 이교도들이 숭배하던 여신들의 이름과 형상 아래서 숭배와 신성을 부여받게 하려던 속셈이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자의 불경함은, 행복(곧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대면 속에서 누리는 영적이고 신적인 완전)을 육체적 향유로 착각하는 사람들의 행태와 닮았습니다. 그들은 감각적인 색채와 윤곽으로 행복을 자신들의 동물적 기능에 맞게 그려내어

마음에 품고는, 모든 생각과 감정(affections)과 섬김을 그것에 제물로 바칩니다. 상상력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인간에게 매우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불완전한 선 몇 개로 그린 죽은 그림자처럼 불분명하고 초라한 관념만으로는 마음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상력이 감각적 대상의 현존으로 자극받고 활기를 띠면, 정신에 그 대상들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새깁니다. 그러면 정신은 의지가 보기에 매우 사랑스럽고 즐거운 쾌락의 그림을 그려 보이고, 의지는 즉시 그것을 껴안습니다. 이처럼 나는 타락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 과정을 간략히 기술해 보았습니다.

이제 참된 지복을 현명하게 선택하기 위해 우리가 자유롭고 오염되지 않은 판단력으로 사물을 비교하려면,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사도가 하늘의 사명을 따를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무한히 중요한 문제에서 감각을 즐겁게 하는 것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타락한 욕망은 그것에 영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혹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으나, 그분 안에서 공격할 빌미를 전혀 찾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며 물러났습니다. 우리 복되신 구주 안에 있는 능력들의 완전한 질서는 유혹자의 가장 교묘한 암시나 가장 맹렬한 공격에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슴속에 품고 있는 어떤 타락한 감정(affections)이 그의 독화살 앞에 우리를 무방비로 노출시키지만 않는다면, 그의 온갖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져 우리 큰 원수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했던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또한 그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은 정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외적인 대상들은 그 자체로는 유용하고 유익하지만, 그것을 남용하는 것은 정욕에서 비롯됩니다. 독은 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해 육적인 능력들과 의논하거나 그것을 신뢰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위험합니다. 그 능력들은 이미 뇌물에 매수되고 오염되어, 우리가 일시적인 것들을 선택하도록 부추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각적 감정(affections)은 그 어떤 개별 정념보다 다루기 힘들고, 오래 지속되며, 위험합니다. 요컨대, 감각적 감정(affections)은 정신을 사로잡아 육체적 선택이 지닌 어리석음과

왜곡됨을 제대로 숙고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한번 격해지면, 마치 분노가 더할수록 힘이 세지는 광인처럼, 지성이 이성과 계시를 통해 가하는 모든 제약을 폭력적으로 파괴해 버립니다.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감정(affections)은 타인과의 경쟁으로 인해 더욱 불타오릅니다. 또한 사람 안에 거룩한 소망과 결단이 싹틀 때에도, 세상의 관습이 워낙 강력하여 그 소망과 결단은 종종 무력해지고 맙니다. 이는 순풍에 돛을 가득 부풀리고도 거센 물살에 막혀 나아가지 못하는 배와 같습니다.

이제 본보기가 끼치는 해로운 영향력에 맞서 우리 자신을 무장시키기 위해, 다음의 사실들을 숙고해 보십시오. 체험을 통해 자신의 비참한 어리석음을 깨달은 자들은 헛된 세상과 더 헛된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한탄하는가? 뭇 군주들 가운데 행성들 사이의 태양처럼 그 찬란한 빛으로 다른 모든 것을 무색하게 했던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는 이 허망의 대륙을 탐사하며 거기서 어떤 만족이라도 찾을 수 있는지 시험해 본 끝에, 이 땅 아래 모든 것은 여러 종류와 등급의 허망함에 불과하다고 슬피 선언했습니다. 마치 여러 빛깔의 모조 보석이 그 소유자를 부유하게 할 수 없듯이, 세상의 것들도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녕 그것들은 허망할 뿐 아니라 괴로움이며, 실망이라는 고통 외에는 아무 실체도 없는 헛된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온전한 가르침을 받았을 때 내리는 판단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가장 진실할 때의 증언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이 이를 때 가장 사려 깊고 진지해지며, 만물에 대해 가장 참되고 올바른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장 자유롭게 선포합니다. 오, 인간의 어리석음은 얼마나 놀라운가! 그들은 자기 길의 끝에 도달하여 해가 지고 생명의 길로 돌아갈 시간이 더는 남아 있지 않게 되어서야 비로소 자기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제 8 장. 우리의 선택을 인도하는 데 필요한 영원한 것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 믿음의 능력에 대한 설명. 영원한 구원을 등한시하게 만드는 원인으로서의 불신앙, 전면적이든 부분적이든.

우리가 거짓 행복에 속아 잠시 기만당하고 참된 행복을 영원히 빼앗기는 이중의 비참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선택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더 논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중 하나는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탄의 분노에 자극받은 사악한 세상이 우리를 의무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위협하는 모든 악, 곧 가난, 치욕, 추방, 나아가 고문과 죽음 같은 것들은 육적인 상상력에 의해 크게 부풀려진 무시무시한 형상(terribles visu formae)들이지만, 진실하고 강한 신자는 그것들을 쉽게 이겨냅니다. 실로 그런 동기로 신앙을 버리라는 압박을 받았던 이들 중 일부는 박해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면 삶은 우리에게 달콤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야 한다면 죽음은 쓰지 않다."

장차 받을 상의 탁월함과 영원성에 대한 생생하고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결과를 낳겠습니까? 영광스러운 불멸에 이르기 위해 우리의 의무 범위 안에서 행하거나 감내하는 일 중에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에는 하늘의 능력이, 곧 마음을 땅에서 끌어올려 하늘의 것들에 단단히 붙들어 매는 자기장과 같은 미덕이 있습니다. 무한히 위대한 선을 똑똑히 보는 영혼이 저급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비천한 것들을 택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숙련된 보석상이 아이들과 장난치려고 가장 값진 동양 진주를 체리 씨앗과 맞바꾸리라 상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에 제시된 위대한 구원을 등한시하는 참된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그것을 듣는 자들의 믿음과 결합하지 않으면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땅이 천국과 우리의 감정(affections)을 두고 경쟁하여 승리하고, 허망함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보다 더 무거워지며, 사람들이 덧없는 그림자를 좇느라 가장 탁월한 실재를 외면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고, 내세에는 행복도 영원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 놀라움은 해소됩니다. 영원한 것들은 육체의 저울 위에서는 무게가 거의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공공연히 종교도 하나님도 없다고 선언하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밝히는 천국과 지옥을 시인들이 지어낸 엘리시온 들판이나 스틱스 강과 같은 수준으로 신뢰합니다. 이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다른 세상에서는 결코 살지 않을 것처럼 죽습니다. 마치 죽음이 너무나 깊은 잠을 불러와 마지막 날에 성자의 음성조차 그들을 깨울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불신은 이성에서가 아니라 사악하고 반대되는 감정(affections)에서 비롯됩니다. 영원한 상태에 관한 진리는 복음 안에 너무나 명백히 계시되고 강력히 확증되어 있기에, 진실한 정신이라면 기꺼이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자신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는 데서 즐거움을 누릴 수 없으므로, 가장 만족스러운 논증의 힘마저 피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들은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지옥을 두려워하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는 서인도 원주민들의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스페인인들이 처음 침략했을 때, 그들은 번쩍이는 칼날에 겁을 먹고 달아나서는 낮에는 숨고 밤에 적을 습격하기로 어리석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보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무모하게 맞섰고, 어둠 속에서 싸우다가 어둠 속에서 죽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위협은 하나님께서 칼을 휘두르시기 전에 번쩍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감각에 사로잡힌 불신자들은 그 무서운 진리가 자기 마음에 들어올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험을 깨닫게 해줄 것들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며, 장차 자신이 확실히 겪게 될 일을 내다보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고하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불신입니다.

우리 구주를 거부한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메시아의 모든 특징이 그분에게서 분명히 드러났고 그분의 가르침이 기적으로 확증되었음에도, 그분의 비천한 신분과 거룩한 가르침에 대한 육적인 편견이 너무나 강했기에 그들은 전능한 확신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아래 사는 불신자들에게 “누가 내 종같이 눈이 멀었느냐?”라는 책망은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보다 더 마땅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이방인들은 시간 이후에 영원이 온다는 희미한 인식밖에 없기에, 그들보다 믿어야 할 이유가 무한히 더 많으면서도 오히려 덜 믿는 자들보다 죄가 가볍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변론이 오히려 그런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고발이 될 것입니다.

눈먼 사람이 넘어지면 동정심을 자아내지만, 스스로 태양을 향해 눈을 감고 빛의 인도를 거부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의 파멸은 자기 어리석음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단순한 무지는

죄의 경중을 따질 때 참작될 수 있지만, 이성과 계시가 연합하여 영원한 세계를 이토록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금, 의도적인 무지는 그런 불신자들의 죄책과 형벌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들을 설득하려 논증을 제시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그들은 가장 지혜로운 가르침에도 독사처럼 귀를 막고 있다가, 감각이 믿음을 강요하고 나서야 비로소 듣습니다. 그들은 모든 책망에 마음과 얼굴을 굳게 하여 성경의 경고를 공공연히 멸시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죄에는 여러 등급이 있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에도 여러 단계가 있지만, 지옥이라는 감옥 문에 가장 가깝고 가장 낮은 단계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위해 마련하신 무서운 심판을 경멸하며 조롱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명목상의 신자 대부분은 마음으로는 불신자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모세의 글을 최고로 존중한다고 자처하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복음이 제시하는 그토록 탁월한 상급을 진지하게 믿는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차갑고 설득력 없는 동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의지의 타락은 그에 상응하는 정신의 결함을 드러냅니다. 이는 완전한 불신까지는 아닐지라도, 유혹이 닥쳐와 절박한 선택의 순간이 오면 감각이 믿음을 이겨버릴 만큼 약하고 흔들리는 동의에 불과합니다.

이는 세상사에서 얻는 보편적 체험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익을 얻으리라는 그럴듯한 희망은 황금을 탐하는 자들로 하여금 목숨을 내던지게 하고, 욕망을 이루기 위해 폭풍우 치는 바다로 뛰어들게 합니다. 만일 영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이와 같다면, 사람인들 어찌 무한히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그만큼 행하거나 견디지 않겠습니까? 확고한 동의는 견고한 순종을 낳고, 약속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터툴리안은 순교자들을 격려하며 이렇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Quis ergo non libentissime tantum pro vero habeat erogare, quantum alii pro falso?" 다른 이들은 헛된 형상을 얻으려고 목숨과 소중한 모든 것을 버리는데, 참된 복을 얻기 위해 그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당장 닥칠 파멸적인 재앙에 대한 두려움은 가장 열렬한 욕망도 제어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할 때, 사울이 승리를 완성하고자 해가 지기 전까지 음식을 맛보는 자는 죽으리라는 금령을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을 쫓던 그들은 꿀이 가득한 숲을 지났지만, 굶주림과 쇠약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양식이 있었음에도 아무도 맛보지 못했습니다. 백성이 왕의 맹세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죄에 대해 지옥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진실로 믿고 두려워한다면, 달콤한 유혹의 손짓을 받더라도 감히 죄를 짓겠습니까? 강한 두려움은 물론이고, 큰 위험이 있다는 의심만으로도 본성의 가장 격렬한 욕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라도, 마실 잔에 치명적인 독이 섞였다고 의심하면 그 시원한 물을 마시겠습니까? 만일 죄에 죽음이 따른다는 것을 사람들이 진정으로 확신한다면, 죄악을 물 마시듯 하겠습니까? 마귀들조차 다가올 심판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여 믿고 떱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공포가 양심에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람들이 그 심판 자체를 믿지 않거나, 또는 그 심판을 대비하는 데 거룩함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자들 안에서조차 영원한 것들에 대한 인식은 크게 희석되어, 세상의 것들을 과대평가하고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에 대한 강한 믿음은 영광스러운 저편 세상을 우리 생각 속에 너무나 확실하고 가깝게 만들어서, 이 땅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을 초연한 감정(affections)으로 받아들이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뻐하여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고, 슬퍼하여도 슬퍼하지 않는 것 같이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심판주가 한 시간 뒤에 오실 것처럼, 해가 막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대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온 땅에 들리는 것처럼, 질서 있고 순결해질 것입니다. 불신은 이런 인상을 무디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한 것들이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억누릅니다. 요컨대,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빛에 인도되느냐, 아니면 감각의 거짓 광선에 오도되느냐에 따라, 그 선택과 삶이 하늘에 속하거나 땅에 속하게 됩니다.

제 9 장 현명한 선택에 필수적인 숙고. 숙고가 효력을 발휘하도록 이끄는 방법

현명한 선택을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숙고입니다. 믿음을 통해 상급의 효력이 모든 기능에 퍼지고 오는 세상의 권능을 영혼이 느끼게 되듯이, 숙고를 통해 믿음은 단련되고 효력을 발휘합니다. 숙고는 영원한 진리의 빛을 하나로 모으고 증폭시켜 감정(affections)을 불태웁니다.

시편 기자가 표현하듯이, “내가 묵상할 때에 내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져 불이 붙는 듯하였나이다.” 천국은 지극히 영광스럽고 매력적인 지복(Felicity)이기에, 마땅히 숙고한다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옥은 극심하고 두려운 불행이기에, 진지하게 마음에 새긴다면 누구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궁극 목적은 악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무한한 선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인간의 의지는 본성적으로 그 선을 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무관심의 자유(liberty of indifference)란, 성향이나 혐오를 유발하도록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 개별적인 선들에 관한 것입니다. 영생이 거룩의 상급임을 믿으면서도 부주의하게 의무를 저버리고, 영원한 죽음이 죄의 삯임을 알면서도 안심하고 죄에 머무는 인간의 모습은, 불길 속에서 노래하는 순교자의 모습보다 더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된 원인은 바로 숙고의 결여에 있습니다.

이러한 태만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성부이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행한 부자연스럽고 놀라운 반역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의무는 그 유익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 의무와 관련되며, 또 그것을 수행할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회심할 수는 없지만, 회심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숙고할 수 있습니다. 의지는 생각을 어떤 대상에게든 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의무의 본질과, 영적 유익을 위해 그것을 다루는 법,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의지를 움직이고 생명을 이끌 활력을 얻게 되는 대상들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진리를 거스르면 정신은 편견으로 가득 차 사물을 공정하게 탐구할 수 없게 되며, 그럴듯한 오류, 즉 진리의 형상을 한 거짓에 속게 됩니다. 정신을 어디에 쏟느냐에 따라 결론이 정해지는데, 정념은 정신을 강하게 이끌어 육체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만 숙고하게 합니다. 그 결과, 설득의 원리는

이성이 아니라 성향이 되고 맙니다. 이는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눈이 보이는 것만 볼 수 있고 지성이 이해 가능한 것만 파악할 수 있듯이, 의지 또한 적어도 겉보기에라도 사랑스럽지 않은 것은 사랑하거나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만일 마귀가 변장 없이 나타난다면 아무도 설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모든 유혹에는 그것을 즐겁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그는 피상적인 것을 견고하고 실체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거짓된 원근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육적인 마음은 무한히 더 나은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즐거움을 주는 것에만 생각을 돌리고, 그에 따라 감각의 눈으로 이 세상의 행복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들이 양심의 시야에 열리고, 정신이 믿음의 빛으로 그 실재와 위대함을 차분히 숙고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올바른 평가나 현명한 선택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감정(affections)에 강한 인상을 새기고 그것을 육체의 속박에서 구해내려면, 생각을 통해 명확하고 이성적인 논증을 강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일에서는 정신이 깨우쳐지는 즉시 의지가 결단하고 하위 능력들이 복종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마음의 저항은 너무나 완강해서, 영원한 영광이 이 땅의 미미한 아름다움과 쾌락의 모습보다 무한히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무오한 원리로부터 명백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가장 날카로운 이성의 논증조차 진지하게 되새기지 않으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가볍거나 스쳐 가는 생각은 일시적인 쾌감이나 불쾌감 같은 감정(affections)을 낳고, 병든 깃털처럼 힘없이 떨어져 나가는 변덕스러운 결심을 낳아, 영혼이 다음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엄숙하고 확고한 생각은 마음에 강력하게 작용하여 온전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가랑비가 내려 땅을 흠뻑 적시면 땅이 비옥해지지만, 겉만 적시는 몇 방울의 비나 잠깐의 소나기는 뿌리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거의 유익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요컨대, 정신에 가해지는 충동으로 선을 향한 약간의 자극이나 악에서 물러서려는 마음, 천국을 향한 불완전하고 희미한 시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회심은 심사숙고의 담론, 즉 사물에 대한 합당한 숙고와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이성적이고 영속적입니다.

나는 앞으로 악인이 장차 겪을 고난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죄를 억제하는 데 적합하고 강력한지를 보일 것이나, 지금은 육체에 갇힌 영혼이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즐거우며 풍성한

일인 천국의 영광에 대한 묵상을 간략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묵상은 정신의 가장 고귀한 활동이며, 하나님과의 가장 순수한 교제이고, 봉헌된 이성의 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하늘의 영화로운 영들의 생명과 가장 닮았습니다. 그리고 감각적 쾌락과 야수성에 빠진 육적인 자들의 생명보다 가장 높은 차원에 있습니다. 이 묵상은 가장 기쁜 생명이니, 감각적 쾌락처럼 만족을 주거나, 영혼을 타락시키거나,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즐거움과 함께 완전함을 주는 기쁨을 영혼에 부어주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가장 유익한 생명입니다. 태양 빛이 강하게 반사되는 땅에서 귀금속과 보석이 산출되어 그 빛나는 행성의 모습을 드러내듯이, 천국의 영광에 대한 생생하고 활발한 사고 활동은 하늘에 속한 감정(affections)과 담론, 그리고 빛나는 행실을 낳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복된 공동체처럼 살게 하여, 그들의 순전함과 순결, 하나님을 향한 기쁘고 온전하며 한결같은 순종을 본받게 합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과 욕망에 맞서는 거룩한 영혼의 선택을 흔들리지 않는 효력으로 확증합니다. 진지하게 숙고하는 신자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황홀한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이 땅과 여기서 행복이라 불리는 모든 것을 경멸하며 내려다봅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공포가 그의 복된 목적을 향한 추구를 막지 못하는 것은, 갓난아기의 숨결이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의 비행을 멈출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가 얼마나 드물고 행해지지 않는가요? 사람들이 얼마나 힘겹게 이 일을 시작하는가요? 일과 쾌락은 강력한 방해물입니다. 어떤 이들은 일이 정당한 이유라고 주장하지만 헛된 일입니다. '오직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주된 생각과 관심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가 시간은 있고, 생각의 흐름은 멈추지 않아 종종 헛되이 낭비되곤 하는데,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만 한다면 영혼에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홀함의 참된 원인은 인간의 내적 기질에서 비롯됩니다. 육체의 쾌락은 정신을 멀어지게 하여, 영원한 것들에 대한 깊고 진지한 사유 활동에 부적합하게 만듭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미친 짓이다"라고 말했듯이, 웃음은 정신을 가볍고 헛되며 산만하게 합니다. 이는 마치 정신이 산란한 사람이 온갖 상상에 이끌려 일관성 없이 이리저리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어두운 근심과 연기 나는 불길로 가득하고, 세상사에 대한 생각과 갈망으로 채워진 마음은 이처럼 맑고 고요하며 차분한 작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천국을 묵상하거나 어떤 영적 의무를 행하더라도 거기서 단맛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는 마치 복숭아 같은 맛있는 과일을 껍질도 벗기지 않은 채 입에 넣는 것과 같아서, 즐겁기보다는 오히려 성가신 일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복음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사악한 감정(affections)에 사로잡혀 죄의 길에 들어선 자들은 자신의 죄책과 준비되지 못함을 의식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는 한 천상의 영광에서 단호히 배제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천국에 대한 생각 자체를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고통이며, 그것을 진지하게 숙고하는 일은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세워 고소하고 정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 10 장. 숙고의 대상들. 인간 창조의 목적. 우리의 선택을 유도하는 세상과 천국의 일들을 그 질과 지속성의 관점에서 고찰함.

다음으로, 의지를 올바른 선택으로 이끌고 생명을 바로잡는 숙고가 어디서 힘을 얻는지, 그 원천이 되는 대상들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권자이신 창조주께서 우주를 채운 수많고 다양한 본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두신 존재, 인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재산을 모으고, 화려함 속에서 빛나며, 잠시 육감적인 쾌락을 누리다가, 마침내 죽음의 날이 오면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황제가 모든 군비를 갖춘 군대를 동원해 고작 해변에서 조개를 줍게 한 것처럼, 인간도 그처럼 하찮은 일을 하도록 이 세상에 보내졌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는 시편 기자의 열정적인 항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헛되이 지으셨다고 비난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이성과 성경은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성취하는 자는 온전히 행복해지고, 놓치는 자는 온전히 비참해집니다. 이는 인간의 모든 의무와 행복이라는 구조물 전체가 세워진 근본 진리입니다. 이 기초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이내 무너져 내립니다. 이 원리의 명확성이 흐려지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게 될 것이며, 길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 길에 대한 기억과 갈망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사유는 이성적 영혼의 고유한 속성이며, 숙고의 올바른 질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스리는 이 최상의 지침 원리인 진리를 정신이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고대인 중 한 사람이 책을 쓸 때, 모든 부분이 본래의 구상과 부합하도록 작가가 제목을 자주 되새겨야 한다고 한 것은 신중한 조언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자주 숙고하여 생명의 여정이 그 목적을 향해 곧게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탁월할수록 그것을 추구해야 할 필연성 또한 더욱 강해집니다.

"나의 생각과 갈망은 어디로 향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내 힘을 쓰고 세월을 보내는가? 내가 신중함과 근면함으로 세상의 재물을 얻는 데 남들보다 얼마나 뛰어났는지가 나의 최종 보고서가 될 것인가?" 이처럼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큰 효력을 지닙니다. 만일 군대가 교전하는 동안 장수가 놀이에 빠져 있다면, 그의 군대는 지휘관이 없어 패배하는 동안 그가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 고귀한 공적이겠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양심이 진실하게 대답하도록 하십시오. 한 외국 귀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일과 나이를 돌아보다가, 생명의 참된 소명과 목적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한 채 어느덧 생이 기울기 시작하는 나이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슬픔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인간임을 깨달았다. 그전까지 나는 내 생명을 무엇을 위해 써야 할지 결심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는 거짓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거룩한 생명에서 행복을 찾고, 이를 가장 열렬히 따르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타락한 정신과 고칠 수 없이 부패한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인간의 숭고하고 초자연적인 목적을 마땅히 숙고해야 합니다. 오, 그 숙고가 육에 속한 사람을 얼마나 놀랍게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까! 만일 그가 죄의 상태에 계속 머무른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일 것입니다. 그 숙고는 마치 새로운 영혼으로 다시 태어난 듯,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감정(affections)과 새로운 결심을 지닌 다른 사람으로 그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입니까! 그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지혜롭고 은혜로우신 계획에 반하는 것이었고, 그의 모든 노력이 길에서 벗어난 경주였으며, 그의 주된 소명에서 끊임없이 이탈한 것이었고, 그의 생명이 참된 목적 앞에서는 열매 없이 죽은 것이었음을 깨닫고 그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전의 어리석음에 그는 얼마나 망연자실하겠습니까? 우리가 지성으로 행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복된 목적에 이끌릴 때뿐이며, 그때 우리의 행동은 흔들림 없이 한결같은 방향으로 나아가 그 목적에 다다릅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영원으로 가는 여정에서 잠시 위안을 줄 수는 있으나, 완전한 행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그토록 가치 있고 즐겁게 보이는 것은 오직 의견과 자만심 때문일 뿐이며, 이는 마치 값싼 천에 값비싼 염료를 들여 가격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 선택의 대상이 될 때, 이성은 흐려지거나 무시됩니다. 이 아름다움과 쾌락의 겉모습들이 참으로 무한한 복과 비교하면 또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의 기쁨은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하고, 공상을 부추기며, 감각을 어루만지지만,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이 영혼을 만족시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추수 때와 포도를 거둘 때 육체의 기쁨이 절정에 달한다 해도,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솟아나는 영적인 기쁨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세상은 우리 감각의 비좁은 용량조차 채우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지닌 가장 넓은 이해력마저도 초월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성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그 선함이 제한적이니, 지혜가 힘이 아니요, 학문이 부가 아니며, 아름다움이 풍요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만족시키는 모든 매력을 지니신 보편적인 선이십니다. 사람이 깊이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행복이라 불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총과 비교하여 분별하고 경멸할 것입니다. 피조물에게서 만족을 구하며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빛을 보고자 하는 이가 태양 앞에서는 물러서서 어두운 물체에 반사된 희미한 빛줄기를 빌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 같은 수증기와 실재적이고 영광스러운 선 사이에, 유한과 무한 사이에 이토록 거대한 본질적 차이가 있다면, 그것들을 향한 우리의 평가와 감정(affections), 존중심에도 그에 상응하는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영혼이 흙먼지에 매달리는 것은 얼마나 비합리적인 일입니까! 거대한 기계를 돌릴 만한 무게추를 작은 시계에 매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물며 행복에 대한 사랑, 곧 올바로 사용되면 우리의 소망을 천국으로 향하게 할 인간 본성의 이 무게추가 단지 세속적인 노고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만 쓰인다면, 이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루, 한 시간, 일 분은 일정한 수의 날과 시간과 분으로 정해진 기간이므로 수천 년과 어느 정도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만 년이라도 영원과는 아무런 비례 관계를 맺지 못하니, 영원은 무한한 지속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은 영원을 표현할 숫자를 찾다가 이내 지쳐 길을 잃고, 경악할 만한 공포에 사로잡혀 혼란에 빠진 채, 영원의 두 거처인 천국과 지옥을 향하여 위아래로 시선을 돌릴 수 있을 뿐입니다. 이제 현세의 것들과 내세의 것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전자는 쏜살같이 흐르는 시간으로 측정되지만, 후자는 불변의 영원 속에 머뭅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위안은 이내 시들어 땅으로 떨어지지만, 생명나무는 오직 위에서만 번성합니다. 번영과 역경을 오가는 잦은 변화야말로 이 유한한 삶의 속성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이들이 때로는 고요함을 누리다가도 이내 폭풍우를 만나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어쩔 수 없이 항로를 변경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을 지나는 우리 여정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이 모든 변화는 끝이 납니다.

진실로 사람은 그 최상의 상태에서도 온전히 허무할 따름입니다. 실로 각 사람은 헛된 그림자 속을 거닐며 헛되이 소란을 피울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의 행복은 결코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녁 무렵, 태양 빛을 반사하여 눈부신 광채로 옷 입고 다채로운 빛깔로 아름답게 장식된 구름을 종종 봅니다. 만일 천사가 자신의 영광에 걸맞은 몸을 입는다면, 저 구름이야말로 그 재료로 어울릴 법하다고 눈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몇 걸음 채 떼기도 전에 해는 수평선 아래로 지고 빛은 사라지며, 그 찬란하게 불타오르던 모습은 간데없고 이내 소나기가 되어 쏟아지는 어두운 수증기만 남을 뿐입니다. 이 땅의 행복이 보여주는 모습도 이처럼 허망하게 사라집니다. 이 점에서는 감각이 믿음을 돕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고 한 성경의 선포가 날마다의 체험을 통해 검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재하지 않는 것에 눈과 마음을 두는 이들의 죄된 어리석음은 더욱 가중됩니다. 세월에 허물어지고 일그러진 얼굴에 누군가 정열적으로 매달리는 모습, 아무런 매력도 없는데 홀려 있는 모습을 보면 놀랍고도 경멸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시든 세상의 허영을 온전한 감정(affections)으로 끌어안는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 신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성도 없으므로 … 내가 그 나무의 일부를 불사르고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그 남은 것으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나무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하고 말하지 아니하는도다." 쾌락을 좇는 이들이 이와 같은 끔찍한 어리석음에서 그들보다 덜 유죄하겠습니까? 태양 아래 모든 것이 스러져 가고, 가장 소중한 위안조차 품 안에서 앗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을 보편적 체험이 확증해 줌에도, 누가 신중히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덧없는 그림자에게 내어줄 것인가? 스러져 가는 세상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 헛된 목표, 헛된 욕망을 품을 것인가?" 나무토막을 숭배하는 것이 더 수치스러운 우상숭배일지는 모르나,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우리의 주된 사랑과 기쁨을 피조물에게 바치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어리석고 파괴적입니다. 선지자의 다음 말씀은 바로 그런 이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는 재를 먹고 사니(재는 영양분이 없을뿐더러 몸에 해롭다), 미혹된 마음에 이끌려 곁길로 빠졌으니, 제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며 '내 오른손에 있는 것이 거짓이 아니냐?' 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이처럼 육체적인 사람들은 이 짧은 쾌락에 대한 감정(affections)에 눈이

멀어, 자신들이 속고 있으며 곧 실망과 슬픔으로 끝날 헛된 그림자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올바로 판단하고 성찰할 자유조차 누리지 못합니다.

요컨대, 이 반짝이는 허상과 거짓 기쁨은 잠깐 동안만 지속될 정신의 오류 없이는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정신 나간 사람이 자기가 왕자라고 여기며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본다면, 그의 망상적인 쾌락을 얻고자 온전한 이성을 버리겠습니까? 특히 그의 흥겨움이 이내 영원한 슬픔이나 맹렬한 광기로 돌변하리라는 것을 안다면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천상의 행복은 그것의 창조주이자 대상이신 하나님처럼 불변하며, 그것을 누리는 영혼처럼 영원합니다. 정욕과 함께 사라져 갈 세상이 우리의 감정(affections)을 돌이켜, 더럽혀지지 않는 불멸의 유업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라지는 겉모습, 스쳐 가는 행복의 형상이 실재적이고 영속적인 것보다 앞설 수 있겠습니까? 실로 경악할 만한 광기입니다! 그림으로 치장한 하찮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천국이 경멸당하다니요. 우리 영혼을 향한 참된 이성의 불꽃 한 점, 진실한 사랑 한 조각이라도 남아 있다면, 우리는 영광의 왕국을 얻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은 우리를 비추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제 11 장. 다른 동기들

하나님은 인간의 영원한 행복을 바라십니다. 진심으로 행복을 구하는 자는 모두 그것을 누릴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그 조건은 은혜롭고 쉽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더욱 힘써 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숙고할 만한 다른 동기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시는 자비로운 태도로, 죄로 인해 비뚤어지고 완악해진 자들을 녹여 이기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행위 또한 그분의 뜻을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논증입니다. 죄인들을 지극히 은혜롭게 붙드시고 도우시는 일, 선을 베푸시고 악에서 보호하시는 무수한 혜택은 모두 그분의 자비로운 섭리의 인도를 받아 회개에 이르고 은혜를 받게 하려는 목적을 지닙니다. 죄인들에게 내리는 현세의 심판은 본질적으로 치유를 위한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미워하게 하여 최종적인 파멸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만일 그 심판이 누구에게 치명적이 된다면, 그것은 그들의 완고한 오염 때문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순히 고통을 유예하는 기간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며 회개할 기회입니다. 그들을 살려두시는 것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그 어떤 사역보다도,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자신의 성자를 내어주신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비할 데 없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상실한 지상의 낙원을 훨씬 능가하는 불변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인간이 얻을 수 있도록 그토록 큰 대가를 치르셨으니, 우리는 그분께서 인간의 행복을 바라신다는 가장 강력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셨음에도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죄인들은 얼마나 큰 죄책과 비참함에 빠지겠습니까.

브루투스가 한 철학자에게 로마에 자유를 되찾아줄 계획을 제안하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행동은 참으로 영광스럽겠지만, 폭정에 순순히 굴복하는 저 수많은 노예 같은 영혼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하찮게 여기는 것을 되찾아주기 위해 미덕과 용기를 지닌 사람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입니다. 인류의 구속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들이 오직 그분의 기적적인 지혜만이 찾아낼 수 있는 탁월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나 성자께서 고통으로 가득한 삶과 무한한 고난의 죽음으로 사신 구원을 비참하게 소홀히 하는 인간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복되신 구속주여! 주님의 죽기까지 하신 사랑에 겸손과 애정과 감사를 담아 여쭙니다. 어찌하여 자신의 비참함에 매혹되고 가장 추악한 배은망덕으로 이토록 귀한 구속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자들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주셨나이까? 그들이 영원히 그 구원을 박탈당하는 것은 참으로 마땅한 일입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가장 깊은 골짜기에 선 사람에게나 가장 높은 산 위에 선 사람에게나 별들은 똑같은 크기로 보입니다. 세상의 부유하고 위대한 자들의 영혼과 가난하고 멸시받는 자들의 영혼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그분의 성자의 가장 보배로운 피로 똑같이 구속받지 않았습니까? 그들 모두 똑같이 영원한 상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약속은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의무와 언약에 신실한 모든 이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사실은 모든 이에게 불타는 열망을 불어넣고, 그들의 최선의 노력을 이끌어내며,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기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육적인 의지는 충동적이고 지체를 견디지 못하며, 미래의 영광을 소홀히 한 채 눈앞의 것만 갈망함을 나는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는 자명합니다. 수확을 바라며 씨를 뿌리는 일이나, 미래의 이익을 위해 육지와 바다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결코 새롭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로 이는 세상의 변치 않는 관행입니다. 상인, 농부, 학자, 군인 등 각자 자신의 소명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이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가장 부푼 희망이 꺾일 때가 많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일을 위해 수고와 고난을 기쁘게 감수하고, 보잘것없고 불확실한 보상을 위해 마치 날개라도 달린 듯 가볍게 짐을 지는 모습은 실로 놀라운 광경이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영광스럽고 진실하신 하나님만큼이나 위대하고 확실한 상을 얻으려는 노력에는 왜 그토록 더디고 무기력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낱 인간에 불과한 군주를 기쁘게 하려고 야심을 품고 그의 밑에서 오랫동안 섬기는지 보십시오. 군주는 기질과 처지가 변덕스러워, 할 수 있어도 해줄 마음이 없을 때가 있고, 해주고 싶어도 해줄 능력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찾는 모든 이에게 가장 후하고 풍성하며 확실하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무한히 더 타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그 자체로 인간에게 매우 선하여, 순종에 따르는 영광스러운 상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 탁월함과 공정함과 감미로움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본성을 닮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순결한 양심과 경건하고 의로우며 절제하는 삶에서 솟아나는 기쁨에 비할 만한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일은 얼마나 기쁜가요? 기도와 다른 거룩한 행위 속에서 우리는 행복의 샘으로 나아가 그분의 충만하심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찬양 속에서 우리는 천사들의 동반자가 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정직과 성실이 속임수와 억압보다 더 쉽고 평안하지 않습니까? 불의한 행동이 드러났을 때 뒤따르는 비난과 복수를 피하고자 늘 가면을 쓰고 기만과 위장을 일삼는 것은 얼마나 성가신 일입니까? 절제와 순결이, 육적인 행복의 본질적 요소라는 사치와 방탕만큼이나 몸에 해롭단 말입니까? 마음이 수많은 헛된 것들로 갈가리 찢기고 감정(affections)이 여러 대상에 나뉠 때, 인간은 얼마나 비참하게 흐트러지는지요! 반면, 마음이 지고선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감정(affections)이 기쁘게 그분을 섬기는 일에 함께할 때, 인간은 얼마나 고요하고 안정되는지요!

그렇다면 어찌 그리스도의 멍에가 무겁고 그분의 율법이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약속이 불확실하고 상이 적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계명은 성가신 것이 아니며, 그것을 지키는 데 큰 상이 있고 이 땅에 낙원이 있습니다. 종교는 장차 하나님을 누림으로써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며, 지금 여기서는 그분의 거룩한 뜻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의무와 행복은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오른쪽 눈을 빼고 오른손을 자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라고, 즉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 가장 아끼는 정욕을 죽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가장 혹독한 고난에 복종하라고 요구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타락한 상태의 인간 본성은 육체적인 감각을 기분 좋게 자극하는 대상에만 맛을 들이며, 그런 대상들로부터 감정(affections)을 끊어 내는 것은 죽음만큼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영혼에 새로운 신적 본성을 부여하여,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는 일을 쉽게 만들어

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감각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환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부패한 체액으로 위가 짓눌리고, 담즙과 끊임없는 갈증으로 목과 입이 타올라서, 목숨이 걸린 문제임에도 과도한 음주를 절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의사가 강력한 약으로 위를 깨끗하게 하고 속의 열을 가라앉히면, 그는 쉽게 과음을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릇된 가치관과 무절제한 갈망으로 가득한 육체적인 사람은 구원이 달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와 피의 과도한 욕망을 억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여깁니다. 외적으로는 쾌락이 있고 내적으로는 정복되지 않은 정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과 함께 극심한 방탕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정신을 맑고 밝게 하며 감정(affections)을 정화하고 고양시켜, 불법적인 쾌락을 절제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쉽게 만들어 줍니다. 회심 전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음의 혈기가 왕성한 이 연약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순결하게 사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돌아보며 '아무개가 지키는 것을 왜 나는 지키지 못하겠는가?'라고 생각하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진지한 시도 끝에, 그는 하늘의 은혜로운 도우심으로 모든 육체적인 유혹을 이겨 냈습니다. 더욱이 그가 거룩하게 변화된 후에는, 사악한 쾌락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전에 그것을 누리던 것보다 형언할 수 없이 더 달콤했습니다. 조잡한 육체적 쾌락을 무미건조하고 경멸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거룩하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명백한 본보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를 엄격하고 순수하게 실천하고, 그 빛나는 삶으로 우리를 천국 길로 인도한 이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몸이 바위틈에서 나왔습니까?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살과 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정념이 솔로몬의 놋 바다처럼 어떤 유혹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상이 주는 인상과 저급한 감정(affections)에서 완전히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살아 있어 육체적인 사람의 감정(affections)을 사로잡는 것들을 느끼지만, 은혜의 힘으로 그것들을 경멸하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복음 안에서 진심으로 갈망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므로, 종교가 가혹한 의무를 지운다는 주장은 헛되고 비참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종교가 때로 신자들을 무거운 고난에 처하게 한다는 반론에 대해 대답하겠습니다. 복음은 이 점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려면, 그의 진리를 위해

고귀한 증언을 하도록 부름받을 때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어떤 비범한 경지나 완전의 지점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즉, 마음의 기질과 결단으로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필요할 때는 실제로 순교하여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불멸을 얻기 위해 일시적인 고난을 견디는 것은 결코 힘겨운 조건이 아닙니다. 이는 고난받으신 구속주의 형상을 본받아 그의 영광의 관을 쓰기 위함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치욕을 영광으로, 입은 상처를 복으로 여기며, 불굴의 인내와 놀라운 기쁨으로 가장 잔혹한 박해를 견뎌 냈습니다. 그들의 인간 본성 또한 다른 이들처럼 연약하여 고통을 느꼈지만, 고난에 대한 본성적 혐오와 반감은 자신의 의무와 그에 따르는 상급을 헤아린 이성적 의지의 결단 아래 통제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악에 기꺼이 자신을 내던지고 영광스러운 결과를 소망하며 기뻐함으로써, 천국이 지금의 세상보다 얼마나 더 가치 있는지를 가장 설득력 있는 실증으로 보였습니다.

요컨대 순종의 상은 개선의 관입니다. 승리가 없으면 개선도 없고, 전투가 없으면 승리도 없으며, 적이 없으면 전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의 적인 타락한 감정(affections)과 싸우고 육체의 욕망을 죽이며, 겸손과 온유한 순종으로 우리 밖에 있는 악의적인 적들의 잔인함에 맞서 이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관을 얻는 길입니다. 천국을 맛보고 소망하는 신자는 순종에 따르는 복된 상을 위해 가장 즐거운 것들을 쉽게 포기하고 가장 혹독한 유혹을 기꺼이 견딜 것입니다.

12 장. 복음은 죄의 쾌락을 천국보다 앞세우는 모든 이에게 지옥을 경고합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사람에게 작용하는 데 얼마나 적절하고 강력한 동기인지 모릅니다. 영원한 지옥의 비참함이 묘사됩니다.

이 땅의 죄인들은 성령의 기쁨,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랑하며 영혼이 누리는 환희, 그분의 은총 안에서 양심이 얻는 평화와 만족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맛을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듯이, 그들은 체험 없이는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기쁨이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행복에 관해 말하는 것은, 천사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감정(affections)과 정신과 언어는 감각적인 것들에 갇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고전 2:14). 육체적인 사람에게는 고난의 피난처로서 천국이라는 관념이 있을 수 있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빛과 색에 대해 어렴풋하고 혼란스러운 생각을 품듯 천국의 지복에 대해 막연한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보듯이, 복음 속에서 그 영광의 불완전한 그림자로나마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사람들은 영광의 관과 천국을 잃는 것보다 이 세상과 그 헛된 것들을 떠나는 것을 더 안타까워하니, 이는 실로 한없이 끔찍한 어리석음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죽음이 견딜 수 없이 쓰라린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을 불태워 정결하게 하기 전까지는, 사람은 그분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스랍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와서 거룩한 선지자의 입술에 대자, 그의 마음은 즉시 녹아 하나님의 뜻에 순응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불에 타오르는 반역한 천사가 지옥에서 파견되어, 저주받은 영혼의 수만큼이나 많은 희생 제물이 하나님의 정의에 바쳐지는 그 제단에서 숯을 가져와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몸에 댄다면,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불타는 것이 무엇인지 생생히

느끼게 한다면, 이야말로 그들을 돌이키게 할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완고한 금속은 오직 불로만 무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최고조에 달한다 해도, 죄인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두려움의 결과로 생겨난 신앙은 그 근원인 원리의 속성을 따라 저항과 고통을 수반하며, 두려움의 강도가 약해지면 이내 흔들리고 맙니다. 반면, 사랑의 성향과 소망하는 선에 대한 희망에서 비롯된 신앙은 온전히 자발적이고 항구적입니다.

가령 두려움에 억지로 학문에 매달리는 학생은 공부가 고역입니다. 책을 읽는 동안에도 그의 상상은 다른 곳을 헤매고, 과제를 마치자마자 곧장 놀러 달려갑니다. 그러나 학문을 사랑하는 이는 근면과 즐거움으로 공부에 몰두하며, 다른 일에 바쁠 때조차 그의 생각은 늘 학문을 맴돕니다. 요컨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몸에 고통스러운 것을 피하려는 자연적인 감정(affections)(affection)에 불과하여 죄에 대한 사랑과 양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천국에 대한 희망은 영적인 감정(affections)이며, 항상 죄에 대한 미움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위대한 목적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강력한 예비 장치로 삼아 천국을 사랑하는 길을 예비하는 데 있습니다. 육욕에 빠진 죄인들이 지옥에 대한 생생한 자각으로 깨어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파멸을 부르는 쾌락을 마음 놓고 즐기다가 죄 속에서 늙어 마침내 회개하지 못한 채 죽을 것입니다. 주님의 공포가 그들을 강타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자비의 제안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비참함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 균열을 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여 들어와 그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죄인은 가장 겸손하고 기꺼이 그 귀한 약속들을 붙잡습니다. 그 약속에는 죄 사함과 형벌 면제뿐만 아니라, 그를 영원한 영광의 상태로 끌어올리는 가장 풍성한 은총이 담겨 있습니다. 이리하여 고통스러운 두려움은 가장 감미로운 소망으로 이어지고, 이전에는 비자발적인 요소가 섞여 있던 순종은 이제 영혼의 온전한 동의와 자녀다운 자유함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저주받은 자들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에 앞서, 지옥에 대한 완전한 서술은 인간의 모든 표현을 초월하며 우리의 가장 끔찍한 상상조차 그 공포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시 90:11) 완고한 죄인들을 위해 무한한

정의와 전능한 진노가 예비하신 재앙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리 큰 죄책감에 시달리며 떠는 양심이라도 그 비참함의 깊이만큼 슬픈 상념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주께서는 진노를 나타내시며, 멸망하기로 준비된 그릇들을 통해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인간을 소멸시킬 만한 고통을 영원히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을 때, 인간이 과연 무엇을 겪게 될지,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누리기 전에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듯이, 지옥의 고통도 겪어보기 전에는 온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고찰을 통해 그 미지의 공포를 얼마간 엿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먼 곳의 악을 미리 내다보고 예방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규범이 신성불가침하게 보존되고, 율법을 향한 경외심과 그것을 어기지 않으려는 굳은 결의가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게 하려면, 예고된 형벌 자체가 지극히 끔찍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가해질 수 있는 목전의 모든 악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우리의 결심을 굳건히 하려면, 순종에 따르는 상이 확실한 보증이 되어야 합니다. 즉,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만이 내세에서 그 상을 누릴 것이며, 그 상이 너무나 탁월하여 세상의 어떤 유혹도 그것과 비교할 때 우리를 의무에서 벗어나게 할 만큼 대단치 않다는 점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지배하고 가장 큰 경의를 받는 대상은 가장 바람직한 선을 베풀고 가장 끔찍한 악을 내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죽을 수밖에 없는 부분을 죽일 뿐)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눅 12:4-5)

가장 잔인하게 고안된 사악한 자들의 강력한 악의가 가할 수 있는 모든 극심한 고문은 다가올 진노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합니다. 따라서 그 고문을 피하고자 다가올 진노를 자초하는 것은, 덤불 그림자에 놀라 절벽 너머로 뛰어드는 말이나 노새보다 더 우둔한 짓입니다. 이 땅의 심판에는

자비가 섞여 있습니다. 모든 질병에 시달리거나, 모든 친구에게 버림받거나, 위로를 온전히 박탈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령 고통이 치유 불가능하다 해도, 우리의 슬픔이 타인의 연민을 자아낸다면 괴로운 마음에 얼마간 위안이 되고 그 도움으로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저주받은 자들은 공포에 둘러싸이고 불길에 휩싸인 채 슬픔을 달랠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불타는 호수에는 물 한 방울조차 없습니다. 이 땅에서 복되다 여겨지던 모든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죽음은 그들의 생명과 죄의 쾌락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들이 정욕으로 남용하며 마음을 의무와 행복에서 멀어지게 했던 대상들을 빼앗기는 것은 지극히 공정한 일입니다. 더욱 극심한 비참은 그들이 가장 가련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전혀 동정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연민은 이 땅에서라면 가장 죄 많은 자가 고통받을 때조차 거부되지 않는 값싼 보편적 위안입니다. 자연법은 죄인이 벌을 받을 때에도 그 인간 자체는 불쌍히 여기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자들에게는 이마저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고뇌와 부르짖음도 하나님과 천국의 복된 영들의 동정심을 자아내지 못합니다. 그들의 비참함은 자신들의 비뚤어지고 완고한 선택이 낳은 정당한 결과이므로, 그들은 동정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옥에서는 인간의 모든 부드러운 감정(affections)이 영원히 소멸됩니다.

우리의 욕망을 기쁘게 하던 모든 선한 것을 박탈당하고, 우리가 가장 깊이 혐오하고 증오하는 모든 악을 겪는 것, 이것이야말로 비참의 극치요 완전한 파멸입니다. 천국에 모든 선이 탁월하게 담겨 있고 오직 선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지옥에는 모든 악이 극심한 정도로 존재하며 오직 악만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이 비참한 상태를 더욱 구체적으로, 가장 육적인 사람들까지도 강력하게 교훈하고 두렵게 할 만한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유황으로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의 폭력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은 없습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의 못으로 묘사되며, 악인들은 그곳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 불이 물질적이든 비유적이든, 고통의 실재성과 강렬함을 상징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불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성분을 더한다 해도 지옥불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불은 사람이 피운 것이지만, 지옥의 불은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끔찍한 예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찬란히 드러납니다. 어떤 교부들의 표현을 빌리면, 저주받은 자가 지옥의 불길에서 이 세상의 가장 맹렬한 불속으로 옮겨질 수 있다면, 그것은 고통을 안식으로 여기게 될 정도라고 합니다. 성경은 저주받은 자들이 겪는 극심한 열기와 불타는 갈증,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는 인간이 쾌락을 좇아 고의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데 사용했던 바로 그 감각들을 고문함으로써, 정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주된 죄인이므로, 그 슬픔의 영역에서는 영혼이 주된 애통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그림자는 이 땅에서 때때로 성도들이 겪는 영적 고뇌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가장 완고한 죄인들조차 저항하거나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욥 6:4)라고 탄식했습니다. 죄책에 사로잡힌 양심 위에 그분의 진노의 불꽃 한 점만 떨어져도, 마치 화약고에 던져진 불덩이처럼 모든 것을 갈기갈기 찢고 폭파시켜 버립니다.

세상의 온갖 오락거리, 사업, 쾌락, 즐거운 대화, 희극도 가슴을 찌르는 고통과 분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 못하는 것은, 마치 성수를 뿌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날뛰는 마귀를 쫓아내려는 것만큼이나 무력합니다. 교만과 환락에 빠져 진지한 신앙을 경멸하던 자들—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어리석은 황홀경이나 영혼에 대한 음울한 침체, 혹은 사소한 일에 대한 쓸데없는 결벽증으로 치부하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와 그 치명적인 결과를 눈앞에 펼쳐 보이실 때 얼마나 돌변하며 당혹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에게 닥쳐올 심판에 대한 끔찍한 예감에 얼마나 안절부절못하는지 모릅니다! 벨사살은 술잔치와 수많은 후궁에 둘러싸여 있다가도, 벽에 쓰인 몇 마디 심판의 글을 보고는 죄책에 사로잡힌 양심에 따라 관절이 녹아내리고 공포에 질려 기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정신적 고통은 슬픔의 시작일 뿐이며, 지옥 용광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요, 하나님의 정의가 지옥에서 악인들에게 엄히 받아낼 무시무시한 대가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런 사례는 드물고 대부분의 사람은 무시하며, 어떤 이들은 정신 착란의 결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깨어난 양심의 가책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담대하고 부주의한 죄인들에게, 저세상에서 악인들을 덮치는 극심한 공포가 어떠한지 깨우쳐 주려면 다음의 사실들을 숙고해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잃어버린 영혼이 자신의 비참함에 대한 슬픈 성찰에서 벗어나게 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옥에는 정신이 맑아지는 순간이 없습니다. 육신은 끊임없이 새로운 고통을 겪도록 새로운 능력으로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그 비참한 상태 그대로 보존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임재의 빛 앞에서 자신의 더럽고 영원한 추함을 보게 될 때 그들은 얼마나 경악하겠습니까? 그 밝고 광대한 무대 앞에서 자신의 온갖 오염을 드러내고, 그 숭고하고 엄정한 심판대 앞에서 모든 죄책을 안고 서야 할 때 얼마나 당혹스러워하겠습니까? 자신이 저지른 그 모든 사악한 죄에 대한 책망을 어찌 견디며, 마땅히 받는 형벌에 대한 조롱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거룩한 심판자는 그들의 재앙을 비웃으실 것이며, 두려움이 닥칠 때 조롱하실 것입니다. 의인들 또한 그들을 보고 비웃으며 말할 것입니다. “보라,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지 않고 스러져갈 헛된 것을 택하며, 엄격한 지혜보다 달콤한 어리석음을 더 좋아하던 자들이다.”

마귀들 또한 그들을 꾸짖을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반짝이는 것에 속아 진짜 보물을 내주듯이, 그들 역시 이 세상의 하찮은 것들 때문에 영원한 행복을 너무나 쉽게 내주었다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수치를 어디에 두겠습니까? 이 땅에서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던 죄인들, 죄에 무뎌져 부끄러움을 모르던 자들—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모든 동정심을 이겨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던 자들—이, 자신의 추악한 정욕과 비천한 굴종이 드러날 때 수치심으로 얼굴을 붉힐 것이며, 그 감각은 그들의 정신 속에서 영원히 되살아날 것입니다. 슬픔을 배가하고 악화시키는 모든 상황이 비참의 중심지인 지옥에 모입니다. 그곳에서의 상실은 상상할 수 없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경배받으시고 영적 계시와 가시적 현현을 통해 은혜로이 자신을 알리시던 성도들의 교제에서 추방당한 가인이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 내가 주의 낯을 뵈옵지 못하리니”라고 영혼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임재로부터의 최종적인 분리는 또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습니까? 인간의 영혼이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얼마나 애달프고 조급하게 고통스러워하는지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깊은 슬픔에 빠져, 모든 아들딸이 일어나 위로하여도 거절하며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이자 형벌입니다. 인간의 모든

무절제한 감정(affections)이 스스로를 고문하는 형벌이 되도록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롭고 불변하는 작정입니다.

연약한 피조물을 잠시 잃는 고통이 그토록 크다면, 무한하고 영원하신 선을 잃는 슬픔은 또 얼마나 감당하기 어렵겠습니까? 육에 속한 비참한 자는 지금 쾌락에 빠져 사는 동안 이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음 세상에서는 자신의 육욕적인 감각을 즐겁게 하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복되신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과의 교제를 잃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으로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빛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는 저 복된 무리를 목격하는 것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하나님과 그의 성도들과의 교통을 영원히 박탈당한 악인들에게 천국 상실의 고통을 무한히 더 또렷하고 끔찍하게 느끼게 할 것입니다.

가장 탁월한 선(善)을 상실함과 더불어 가장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악(惡)을 겪는 일이 뒤따릅니다. 판결은 이러합니다. "너희 저주를 받은 자들아 …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우울증 환자들의 경우처럼 실제 외부 원인 없이 마음속에서 생겨난 상상의 슬픔조차, 정신의 명랑한 활동에 필요한 영의 밝음과 순수함을 어둡게 하고 타락시키는 탁한 기운으로 인해 본성이 짓눌릴 만큼 억압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징벌하는 손길 아래에서, 죄에 대한 그분의 분노가 얼마나 순결하고 거룩하며 죄인을 벌하시는 그분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롭고 두려운지가 온전히 드러날 때, 정죄받은 죄인들의 슬픔은 얼마나 더 견디기 힘들겠습니까?

안일한 죄인은 고통받는 자의 수가 많으면 그 비참함이 완화될 것이라 상상하며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덜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고통받는 자들의 수는 위안이 되기는커녕, 비참한 동료들과 함께하며 서로 소통하는 것으로 인해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뿐입니다. 각자는 슬픔에 둘러싸여 주위의 참상을 보며 보편적인 비애를 느낍니다. 저주받은 모든 자의 울음과 통곡, 절규와 고통스러운 표현은 개개인의 고통과 번뇌를 증폭시킵니다. 마치 바람이 불꽃에 합세하여 불길을 더욱 사납게 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그토록 쉽게 용서하시는 자비가 그들 안에 감사와 순종의 감정(affections)을 낳지 못했고, 오히려 가장 무가치한 도발로 완고한 반역자에게 마땅한 복수를 자초했다는 사실은 정죄받은 자들을 스스로에게 분노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겪는 고통 자체보다, 그 모든 원인이 오직 자신에게 있었다는 찢어지는 마음의 깨달음으로 인해 더욱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토록 귀하게 값을 치르고 간절히 주어진 위대한 구원을 어리석게 외면한 것에 대해, 그들 안에서 얼마나 맹렬한 후회의 불길이 타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건만 그들 스스로 저주받기를 고집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형벌에 불타는 고통을 더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결코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천 년을 누려도 천국의 상실을 보상할 수 없고 지옥의 한 시간 고통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짧고 비천한 감각적 쾌락을 위해 천국은 영원히 빼앗기고 지옥의 고통은 영원히 겪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이 악의에 찬 갈망만큼이나 그것을 이룰 전능한 힘까지 가졌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그의 존재를 파괴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격렬한 분노를 무한히 초월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원한에 찬 저주는 태양을 향해 쏜 화살이 쏜 자의 머리 위로 떨어지듯, 오직 자신에게 파멸적으로 되돌아올 뿐입니다. 완고하고 악의적인 영이 습관적으로 증오해 온 화해 불가능한 적에게 다가가 해를 끼칠 수 없다는 사실보다 더 그를 격분시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컨대, 복된 영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늘 발휘되는 거룩하고 기쁨에 찬 감정(affections)을 통해 천국에 있고 또 천국이 그들 안에 있는 것처럼, 저주받은 자들은 그들을 끊임없이 잠식하는 맹렬하고 비참한 정념을 통해 지옥에 있고 또 지옥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고통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생각은 그 비참함을 무한히 가중시킵니다. 길 잃은 영혼은 영원히 겪어야 할 고통을 두려움 속에 숙고하며, 고통의 전 기간에 걸쳐 자신을 괴롭힐 모든 악을 한순간에 느끼는 듯합니다. 고통의 영속성은 언제나 예견을 통해 느껴집니다. 이는 영혼이 영원한 세월의 순환 속에서 조금도 경감되지 않은 채 계속될 고통을 예견하며 고통받는 것이니, 마치 수레바퀴 위에서 잔인하게 뼈가 부서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점을 더 실감 나게 이해하기 위해, 고통은 정신으로 하여금 시간의 흐름을 더욱 예민하게 인식하게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십시오. 쾌락 속에서 시간은 빠르고 소리 없이 흘러가지만, 고난

속에서 시간은 지루하게 느껴지며, 극심한 고통 속에서는 매 순간이 길게만 느껴집니다. 고통받던 시편 기자가 얼마나 격정적으로 탄식했는지 주목할 만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그는 동일한 감정(affections)을 이처럼 다채롭고 애절한 형태로 표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늘 엄격하시지만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음에도, 그의 고뇌는 마치 고통의 한순간이 영원인 것처럼 탄식을 터뜨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자들이 겪는 슬픔의 고통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은 현재의 비참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겪어야 할 광막한 영원을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3 년간의 기근, 3 개월간의 전쟁, 3 일간의 전염병이라는 세 가지 끔찍한 재앙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제안이 주어졌을 때, 그는 그 자체로는 가장 혹독한 재앙이었지만 가장 짧은 것을 택했습니다. 다른 심판들 아래에서는 수많은 슬픔의 날들을 보내야 했을 것이고, 죽음이 다양한 모습으로 예견되어 그 지루한 기다림이 갑작스러운 일격보다 더 큰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반면, 전염병의 맹위는 곧 끝날 터였습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벗어날 길이 없으며, 밤낮으로 영원무궁토록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죽음을 구하되 찾지 못하겠습니까? 소멸될 수 있다면 그것을 얼마나 큰 은혜로 여기겠습니까?

현세에서조차 불행이 너무나 가중되어 위로가 전혀 남지 않거나, 고통이 너무 격렬하여 슬픔에 잠긴 영이 그것을 감내하고 회복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삶보다 죽음을 택합니다. 하물며 고통이 극에 달하고 그것을 완화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세에서, 저주받은 자들이 단순한 존재라는 불행한 선(善)에 애착을 느껴, 가능하다 해도 완전한 소멸을 선택하지 않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익숙함이 그 상태를 더 견딜 만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자신의 헛된 망상이 끔찍하게 논파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로 가벼운 악을 계속 겪다 보면 그것을 견딜 인내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극한의 상황에서는 악이 더욱 무겁고 견딜 수 없게 될 뿐입니다. 결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나 고문대에 매달린 사람은 고문이 길어질수록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진다.

요컨대, 복된 자들이 천국의 기쁨을 잃을 염려가 없기에 그 기쁨이 무한히 더 황홀한 것처럼, 지옥의 고통 또한 저주받은 자들이 풀려날 희망이 전혀 없기에 그에 비례하여 더 혹독합니다. 오, 영원히 살아 계시며 영원히 벌하실 수 있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이 비참함에 대한 진지한 숙고야말로, 안일한 죄인들을 일깨워 지옥의 형벌에 던져지기보다는 차라리 오른손을 자르고 오른 눈을 빼내어 가장 아끼는 정욕을 끊어버리도록 결단하게 하는 가장 적절하고 강력한 수단입니다.

감각의 판단에 따르자면, 제정신인 사람이 가장 강렬하고 절묘한 쾌락을 일 년간 누리고 나서 단 하루라도 용광로에서 기꺼이 불타려 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루의 쾌락을 위해 일 년을 불타려 하겠습니까?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의 불타는 영원한 진노를 자초하는 자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짐승들입니까? 우리가 주를 진노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보다 강하겠습니까? 촛불에 손가락을 대보거나 뜨거운 숯을 만져보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을 금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그러나 인간은 이 끔찍한 대상에 대해 마음을 써서 숙고하려 들지 않습니다. 지옥을 가장 깊이 생각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가장 적게 생각하니, 육적인 마음이 다가올 재앙을 떠올리기를 얼마나 꺼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야말로 죄인들이 길을 바꾸어 죄에서 거룩함으로, 피조물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첫 번째 동기입니다.

앞서 살폈듯이, 천국의 기쁨은 영적이고 신적이어서 육적인 감정(affections)을 끌어당기는 힘이 없으므로, 그것만으로는 아무도 회심하거나 자신을 바로잡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불의 고통은 감각에 가장 뚜렷하고 맹렬하게 느껴지므로 상상력을 통해 강렬하게 그려져 육적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악하고 완고한 습관에 젖어 있던 얼마나 많은 이들이, 꺼지지 않는 불을 엄숙히 믿음으로 숙고함으로써 용광로 속 세 청년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자신들 안에서 재현되는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단단한 결박은 불타 끊어지고, 모든 능력은 의무의 자유, 곧 순종이라는 복된 자유로 회복되었습니다.

진실로, 만일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기 위해 지옥을 만들지 않으시고 오직 거룩함에 대한 상급으로 천국만 예비하셨다면, 복된 천사들만이 그곳을 차지하고 천국은 그 영광만큼이나 인간의 영혼은 텅 비어 있었을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은 이토록 어리석고 맹렬하게 감각을 즐겁게 하는

것에 이끌리며, 그 결과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있는 가장 귀하고 영원한 선들을 확실히 상실하고 맙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자신들의 죄된 쾌락에서 남는 것이라고는 결코 죽지 않는 벌레와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뿐이라는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임박한 위험을 숙고하게 하고, 마치 필연에 이끌리듯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부차적인 대상으로서 천국을 찾게 합니다.

자철석이 쇠로 둘러싸여 힘이 더해지면 홀로 있을 때보다 훨씬 무거운 것을 끌어당기듯, 천국의 매력도 지옥의 공포로 강화될 때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움직이는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니, 곧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능동적이고 최상의 지혜입니다.

13 장. 마지막 지침

영원한 세계를 믿도록 우리의 정신을 밝혀 주시고, 장차 올 복을 갈망하며 추구하도록 우리의 의지를 온전히 돌이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경에는 다음 세상의 영원한 보상에 관해 이토록 분명하고 확실한 발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들에게 자신의 탁월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곳으로,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영원히 머무는 곳입니다. 반면 지옥은 절망과 분노와 슬픔, 그리고 불과 유황이라는 끔찍한 상징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악인들을 위해 정해진 감옥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히 주어졌으므로, 모든 사람이 거룩한 분투로 천국을 쟁취하고 다가올 진노를 피해 가장 신속히 도망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자연의 본능과 이성의 빛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장 소중한 유익을 지키도록 촉구합니다.

인간에게 무한하고 영원한 것 이상의 복을 누릴 기대나 갈망이나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영원한 비참보다 더 두려운 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두 대상이 사람들 앞에 놓여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증하신 바는, 자신의 선택과 추구에 진실하고 꾸준한 모든 사람은 천국을 얻을 것이요, 지옥에 던져지는 자는 오직 스스로 지옥을 선택한 자들이므로 그 형벌을 받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 놀라워라! 우리가 사람들의 행로를 진지한 눈으로 살피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중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수가 죽음을 사랑하고 영생을 미워함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이성적 피조물이 명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그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나 해석상으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행복을 의도하면서 비참을 선택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는 자는 그 위반에 따르는 이미 알려진 형벌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썩어 없어질 세상을 천국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가장 모욕적인 방식으로 천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 인간의 부패가 이러하여, 정신은 헛된 생각에 팔리고 심장은 감각적 욕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정신의 영이 새로워지고 지고선을 향한 본래의 감정(affections)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살아나 회복되기까지는 그것에 무관심하며 오직 감각을 즐겁게 하는 것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과된 가장 필연적인 의무는, 겸손하고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영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정신을 밝혀 영원한 상급의 실재와 위대함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그 매혹적인 힘을 느끼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영의 작용이 있어야만, 우리의 주된 행복이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과 삶을 다스리는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이란 자신의 판단과 행동의 근거와 동기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어리석음이라 불립니다. 지성 기능이 신체 기관의 부조화(백치의 경우처럼)나 체액의 염증으로 인한 상상력의 혼란(정신 나간 사람의 경우처럼) 때문에 사물을 헤아리고 비교하지 못하여 그릇된 판단을 내리는 것과 같이, 육적인 정신도 제대로 헤아리고 숙고하지 않음으로써 영적인 것들에 대해 거짓된 판단을 내립니다. 손바닥만 한 물건이라도 눈앞에 두면 하늘을 가릴 수 있는데, 가깝고 먼 사물의 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조각이 하늘보다 크다고 결론 내리는 자는 마땅히 어리석은 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영혼에 영원한 영향을 미칠 미래의 것들보다 감각에 현존하는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육적인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이보다 더 심합니다.

한편, 어떤 행위들은 본성 그대로의 인간이 하면 어리석음으로 여겨지겠지만,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평판받는 이들이 하면 신중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바로 그러한 행위들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어리석음입니다.

깨어진 정신, 곧 손상된 원리(Laesum principium)를 회복하여 사물을 그 본성에 따라 고찰하고 분별하며 결론 내릴 수 있는 건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께서는 타락한 정신에 작용하여 그것을 명료하게 하고 깨우치십니다. 그로써 타락했던 정신은 복음 안에 담긴 모든 위대하고 귀한 약속들의 진리 속에서 빛나는 신적 권위의 가장 분명한 표지를 통해 온전한 확신을 얻고, 생각을 꾸준히 적용하여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엄청난 차이를 보게 됩니다.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이 내세의 무한하고 헤아릴 수 없는 지복에 비추어볼 때 얼마나 하찮은지 깨닫게 됩니다.

요컨대 새로워진 정신은 영적인 것들을 그 본성과 성질에 따라 알고 믿으며 평가하여, 그것들이 영원한 중요성을 지니며 인간의 행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확정합니다. 또한 자연적인 시각 능력이 상실되면 인간의 기술로는 회복할 수 없고 기적이 없이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된 욕망으로 어두워진 지성 또한 영의 새롭게 하는 능력이 없이는 영적인 것들을 마땅히 알아야 할 대로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나오는 맹인들이 의사들에게서 더는 도움을 바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능력을 듣고 그의 치유하시는 자비를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이요 구주이신 분께 더 고귀하고 높은 의미에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합시다.

가장 열렬한 감정(affections)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성부께 부르짖어 그분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지성의 눈을 밝히사 그의 소명이 주는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성령께서는 영혼을 변화시켜 그 가치 평가와 감정(affections)을 영적으로 만드십니다. 그렇게 되면 영혼은 더 이상 내적으로 은혜와 영광을 싫어하지 않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게 하시고, 장차 성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실 그리스도를 인내로 기다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